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이 정 윤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미혼남녀의 내현적 자기애와  
데이트 폭력 가해의 관계

: 부정적 자동사고와 집착행동의 매개효과

2017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 리 학 과

이 아 람

미혼남녀의 내현적 자기애와  
데이트 폭력 가해의 관계

: 부정적 자동사고와 집착행동의 매개효과

이 정 윤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 리 학 과

이 아 람

# 인 준 서

이아람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7년 5월

심사위원장.....(인)

심사위원.....(인)

심사위원.....(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목 차

## 논문개요

I.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II. 이론적 배경 .....	8
1. 데이트 폭력 .....	8
1) 데이트 폭력의 정의 .....	8
2) 데이트 폭력의 가해요인 .....	9
3) 데이트 폭력과 성차 .....	11
2. 내현적 자기애 .....	13
1) 자기애 개념과 하위유형 .....	13
2) 내현적 자기애와 데이트 폭력 가해 .....	15
3. 부정적 자동사고 .....	18
1) 자동적 사고의 정의 .....	18
2) 내현적 자기애와 부정적 자동사고 .....	19
3) 부정적 자동사고와 데이트 폭력 가해 .....	22
4. 집착행동 .....	24
1) 집착행동의 정의 .....	24
2) 내현적 자기애와 집착행동 .....	26
3) 집착행동과 데이트 폭력 가해 .....	27
4) 부정적 자동사고와 집착행동 .....	28

<b>III. 연구모형 및 연구문제</b> .....	<b>31</b>
1. 연구모형 .....	31
2. 연구문제 .....	33
<b>IV. 연구방법</b> .....	<b>34</b>
1. 연구절차 및 대상 .....	34
2. 측정 도구 .....	39
1) 내현적 자기애 척도 .....	39
2) 부정적 자동사고 척도 .....	40
3) 집착행동 척도 .....	41
4) 데이트 폭력 가해 척도 .....	42
3. 자료 분석 .....	44
<b>V. 연구결과</b> .....	<b>47</b>
1.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	47
2. 데이트 폭력 가해 유형에 따른 발생률과 발생빈도 .....	48
3.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 .....	51
4. 매개효과 검증 .....	55
5. 간접효과 검증 .....	58
<b>VI. 논의</b> .....	<b>60</b>
1. 결과에 대한 논의 .....	60
2.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 .....	70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 표 목차

<표 1>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	36
<표 2> 연구 대상자의 이성교제경험 특성 .....	38
<표 3> 내현적 자기에 척도의 문항구성 .....	39
<표 4> 부정적 자동사고 척도의 문항구성 .....	41
<표 5> 집착행동 척도의 문항구성 .....	42
<표 6> 데이트 폭력 가해 척도의 문항구성 .....	43
<표 7> 주요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점수 범위 .....	47
<표 8> 성별에 따른 데이트 폭력 발생 비율 차이 검증 .....	50
<표 9> 성별에 따른 신체적 폭력 문항별 발생 비율 차이 검증 .....	50
<표 10> 주요 변인의 하위 요인들 간 상관관계 .....	53
<표 11> 내현적 자기에와 데이트 폭력 가해의 관계에서 부정적 자동 사고와 집착행동의 매개효과 검증 .....	57
<표 12> 간접효과 Bootstrap 분석 결과 .....	59

## 그림 목차

[그림 1] 연구모형 .....	32
[그림 2] 내현적 자기애와 데이트 폭력 가해의 관계에서 부정적 자동사 고와 집착행동의 매개모형 .....	55

## 논문개요

본 연구의 목적은 미혼남녀의 내현적 자기애와 데이트 폭력 가해의 관계에서 부정적 자동사고와 집착행동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이성교제 경험이 1회 이상 있는 만 18세에서 35세까지의 미혼남녀 289명(여 171명, 남 118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하였다. 측정도구는 내현적 자기애 척도, 일차적 분노사고 척도, 집착행동 척도, 갈등책략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데이트 폭력 가해는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구체적으로 남자에 비해 여자가 가해 비율이 높았다. 둘째, 주요 변인 간 상관분석 결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예상한 것과 같이 내현적 자기애와 데이트 폭력 가해, 부정적 자동사고, 집착행동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셋째, 내현적 자기애와 데이트 폭력 가해의 관계에서 부정적 자동사고와 집착행동의 매개모형을 살펴본 결과, 내현적 자기애와 데이트 폭력 가해의 관계에서 부정적 자동사고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고, 집착행동의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내현적 자기애와 데이트 폭력 가해 간 관계에서 부정적 자동사고와 집착행동의 간접효과를 검증한 결과, 내현적 자기애와 데이트 폭력 가해의 관계에서 부정적 자동사고와 집착행동의 순차적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완전매개모형이 지지되었다. 본 연구는 내현적 자기애 성향과 데이트 폭력 가해의 관계에서 부정적 자동사고와 집착행동이 완전매개함을 확인함으로써, 데이트 폭력 가해의 발생 기제 및 경로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제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요 단어: 데이트 폭력, 내현적 자기애, 부정적 자동사고, 집착행동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이성관계 내 심각한 흉악 범죄들이 연이어 매체에 보도되고 있고, 데이트 폭력이 단순히 연인 간의 개인적인 다툼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서 집중 조명되고 있다. 2015년도 경찰청 범죄통계에 의하면, 2015년 전체 170만여 건의 범죄 중 1만 3천여 건(0.7%)이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였다. 그 중 살인 및 살인 미수를 포함한 강력 범죄가 730건, 상해 및 폭행을 포함한 폭력 범죄가 약 9,078건이었다. 특히 살인 및 살인 미수가 102건으로, 이는 한해 데이트 폭력으로 인해 3일에 1회꼴로 살인 범죄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경찰청, 2015). 데이트 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경찰청은 2016년 2월 전국 경찰서에 ‘연인간 폭력 근절 특별팀’을 구성하고 1개월 간 ‘연인 간 폭력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였다. 그 결과 전국적으로 총 1,279건의 신고를 접수받아 868명을 검거하였는데, 2015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형사입건 피의자 수가 49.1% 증가하여 최근 일어나고 있는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다양한 유형의 데이트 폭력은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심리적·정신적 피해를 수반한다(Makepeace, 1986).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들은 자존감이 매우 낮고,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심리적 불안정감으로 사회화와 대인관계에서 두드러진 문제를 가질 수 있다(Aguilar & Naghtingale, 1994). 또한 피해자들은 심각한 경우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정신병리 문제를 가지게 될 수도 있어(Levy, 1990), 이성관계 내 데이트 폭력이 정서적·심리적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크다고 볼 수 있겠다.

한편, 20대와 3대 미혼남녀의 경우 데이트 상대와의 교제를 통해 깊은

관심과 친밀성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심리적 발달과업 중 하나이다(최선우, 이영호, 2015). 초기 성인기의 이성교제 경험은 이후 배우자의 선택, 결혼 만족이나 결혼 생활의 양식 등에 영향을 미치며 성인기의 적응과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Gottman & Levenson, 2000). 그러나 이러한 이성교제의 중요성과는 별개로 성인 초기에 들어선 대학생들의 주요 스트레스 요인이 애정관계에 있으며(유제민, 2002), 원만하지 못한 데이트 관계가 대학생들의 정서적·심리적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갈등 요인으로 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되고 있다(Joyner & Udry, 2000). 특히 연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폭력은 이후 가정에서도 발생되기 쉽고, 실제 데이트 폭력을 경험했음에도 많은 경우 결혼까지 이어져 데이트 폭력이 가정 폭력으로 연결되기도 한다(O'Leary, Malone, & Tyree, 1994).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이성관계 내에서의 데이트 폭력은 개인과 사회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고, 따라서 데이트 폭력의 가해 및 피해를 중재하고 나아가 예방하기 위해 다양하고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안귀여루(2006)는 Riggs와 O'Leary(1989)의 이성교제폭력 모델에 따라 데이트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적 요인과 상황적 요인으로 구분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개인의 내적 요소로서 성격적 요인이 데이트 폭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게 다루어진다고 밝혔다. 최근의 동향은 성격적 요인 중에서도 자기애와 데이트 폭력을 함께 다루는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 Kohut(1971)에 의하면 자기애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으로 건강한 자기애는 자존감과 자기 확신을 가지고 타인과 성숙한 형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유아기 시절 부모와 올바른 애착 관계를 형성하지 못할 때 유아는 지속적인 거부와 좌절을 경험하면서 온전한 자기 가치감을 발달시킬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자기애적 상처를 갖는다. 자기애적 상처를 가진 유아는 스스로 웅대한 자기상을 형성하여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보상

받고자 하나, 이런 욕구가 충족되지 못할 때 분노하고 공격성을 나타내게 된다(Kohut, 1971). 그리고 이러한 자기에 특성은 데이트 폭력 가해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Ryan, Weikel, & Sprechini, 2008).

자기애는 발현 양상에 따라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로 구분된다(Akhtar & Thompson, 1982; Wink, 1991).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는 모두 웅대하면서도 내면적으로는 취약한 자기개념을 핵심 특징으로 갖고 있지만, 표현 양식은 다르다. 외현적 자기애는 웅대성을 과시하는 유형으로 오만한 행동을 보이며, 긍정적인 자기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이준득, 서수균, 이훈진, 2007). 반대로 내현적 자기애는 무의식적인 웅대감을 억압하는 유형으로 오히려 자기 확신이 부족한 것처럼 보이며 모호한 우울감에 시달린다. 또한 타인의 반응이나 평가에 지나치게 과민하고, 내향적이며 불안정해 보인다.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개념이 부정적이고 적대적으로 나타나고, 분노억제 수준이 높아 대인관계에서 수동공격이나 투사 등의 부적응적인 대처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준득, 2005; 최혜정, 장문선, 2010; 황성훈, 2010).

외국에서 진행된 자기애와 데이트 폭력 간의 관계를 살핀 연구에서도 내현적 자기애는 외현적 자기애보다 신체적 폭력 가해를 설명하는 데 더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냈다(Ryan et al., 2008). 김시원과 박경(2012)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에서도 내현적 자기애가 데이트 폭력 가해의 예언 변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자기애 성향과 데이트 폭력 간의 관계를 살펴본 몇몇 연구들에서 연구 대상자의 성별이나 데이트 폭력의 유형 등에 따라 결과가 일관되지 않고 있다. 즉, 자기애 성향에 따라 데이트 폭력 가해를 설명할 때 그 상호관계를 일관되게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자기애가 데이트 폭력 가해에 단독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요인들과 함께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한편,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비판, 타인비난, 파국화 등의 부적응적인 인지조절전략을 주로 사용하며(김진희, 2011), 타인의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걱정과 거절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취약성으로 가진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내현적 자기에와 부정적 자동사고의 관련성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자동적 사고란 비합리적 신념을 토대로 개인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나 영상을 의미하는데, 자동적 사고의 내용과 그 해석이 부정적이라면 부정적 자동사고로 분류된다(권정혜, 1993; Fennell, 1989). 이러한 부정적 자동사고는 역기능적 신념 혹은 인지왜곡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는데(이지현, 이정운, 2009), 내현적 자기에 성향의 경우 자아도취적이면서도 타인, 그리고 세상 일련에 대해 완벽주의적 사고를 특징으로 하여 겉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내면 깊은 곳에 지니고 있는 자기에적인 성격 역동과 기제가 있다. 즉,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가지는 거대자기 환상이나 타인에 대한 이상화와 같은 특징들이 사고체계의 일부분으로 자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성향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당위적인 요구를 하는 비합리적 신념 수준이 높을수록 극단적이고 과도한 정서경험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내현적 자기에 성향은 자기비난, 타인비난, 반추, 파국화와 같은 부적응적 정서조절전략과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났다. 그러므로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들이 부정적인 사건을 겪을 때, 극단적으로 평가하고 사건에 대해 반복적으로 생각하며 타인을 비난함으로써 정서조절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았다(박세란, 신민섭, 이훈진, 2005). 따라서 내현적 자기에의 특징과 부적응적인 인지 전략의 밀접한 관련성으로 볼 때, 내현적 자기에와 부정적 자동사고와의 관련성 역시 시사된다. 실제로 선행연구에서 내현적 자기에와 열등감, 부정적 자동사고의 관계를 다룬 결과,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높을수록 부정적 자동사고 수준이 높게 나타났고(주지영, 이동귀, 2012), 이는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여러 부적응적인 심리 특성과 관련된다

는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Akhtas & Thompson, 1982).

또한 데이트 폭력의 주요 예언 변인으로 상대에게 집착하는 성향을 포함한 불안정 애착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선행연구에서는 불안정 애착 중 관계에 집착하는 성향을 특징으로 하는 몰두형 애착이 데이트 폭력과 관계가 있었으며(Wheeler, 2002), 이러한 불안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버림에 대한 과도한 걱정과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크게 지니 상대의 만족스럽지 못한 행동이나 연인관계를 위협하는 잠재적인 단서에 쉽게 분노한다. 따라서 데이트 도중 상대를 조절하고 통제하기 위해 폭력을 행할 가능성이 있다(Dutton, 1998; Follingstad, Bradley, Helff & Laughlin, 2002). 집착이 일어나게 되는 심리적·정서적·인지적 과정에 대해 연구한 원상희와 허승(2004)은 집착과 부정적 자동사고가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즉, 이성관계에서 나타나는 집착행동은 자신의 부정적인 면을 더 부각해서 인식하고, 상대가 자신을 떠나거나 관계가 깨질 수 있는 잠재적인 단서에 대해 과도하게 몰입하여 불안해하는 등 상대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귀인하기 때문에(이복동, 2000) 이러한 걱정들이 증폭되어 나타나게 된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연구결과를 통해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높은 사람들의 경우 타인의 반응에 대한 과민성 그리고 거절에 대한 두려움 등의 자동적인 인지도식으로 인해 좌절에 대한 준비가 어렵고, 데이트 관계에서 분노 표현을 순간능적으로 하지 못하는 특징을 가져 데이트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즉,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들의 웅대한 자기상과 자기중심성에 비해 취약한 자기구조로 인하여 이성관계에서 건강한 상호작용이 어렵고, 결국 부적응적인 대처방식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높은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부적응적 경향성을 부정적 자동사고라는 변인으로 설명할 수 있고, 이러한 부정적인 인지도식은 이성 간의 집착행동과 같은 역기

능적 행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즉, 이성관계에서 데이트 상대의 행동이나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경직된 사고 혹은 부정적인 해석은 현상을 왜곡하여 불안이나 걱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이성관계 내 집착행동으로 나타나게 될 수 있다. 최근의 집착행동과 데이트 폭력의 관계를 밝힌 연구에서도 집착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은 관계 혹은 거부에 대한 불안감이 크고 상대에 대한 의심 때문에 연인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오해석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보았다(Wheeler, 2002). 따라서 이성관계에서 상대에게 만족하지 못한 경우 쉽게 분노할 수 있고, 데이트 상대를 통제하고자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내현적 자기애, 부정적 자동사고, 집착행동과 데이트 폭력 가해 간의 관련 가능성을 유추해볼 수 있다. 그러나 자기애와 데이트 폭력 간의 관계를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서 성별 혹은 데이트 폭력의 유형에 따라 그 상호관계를 일관되게 예측하기가 어려우므로, 내현적 자기애, 부정적 자동사고, 집착행동, 데이트 폭력 가해에 이르는 경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국내에서 내현적 자기애, 혹은 집착성향과 데이트 폭력 가해에 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지만(김시원, 박경, 2012; 주지현, 서경현, 2015; 양승애, 서경현, 2014), 성격특성, 인지특성 그리고 행동특성을 함께 본 연구는 찾기 어렵고, 부정적 자동사고, 집착행동과 데이트 폭력 가해 간의 경로에 대해 밝힌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만 18세에서 35세에 이르는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내현적 자기애가 데이트 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부정적 자동사고와 집착행동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부정적 자동사고와 집착행동이 내현적 자기애와 데이트 폭력 간에 작용하는 개입 가능한 매개요인으로 확인된다면 데이트 폭력 가해에 관한 원인론적 변인 및 형성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데이트 폭력과 관련된 상담에서 보다 구체화된 상담적 개입의

효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테이트 폭력 가해에 대한 내현적 자기애의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실제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의 문제를 이해하는데 배경 탐색을 통한 성격적 요인의 취약성을 확인하고, 이에 개입할 수 있는 실증적인 치료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II. 이론적 배경

### 1. 데이트 폭력

#### 1) 데이트 폭력의 정의

데이트 폭력에 대한 연구는 Makepeace(1981)에 의해 ‘구애기 폭력’이라는 개념으로 연구 및 분석하면서 처음 시작되었다. 이후 여러 연구자들이 다양한 접근을 통해 데이트 관계 내 폭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여러 용어 및 이론들이 등장하였다. ‘구애기 폭력’을 시작으로 ‘구애기 학대’, ‘결혼 전 학대’, ‘데이트 공격’, ‘이성교제 폭력’, ‘연애폭력’ 등 다양한 용어들이 사용되었으나, 현재 학계에서는 ‘데이트 폭력’으로 주로 통용하여 사용하고 있다(서경현, 2009).

데이트 폭력이 갖는 의미는 대체로 비슷하지만 포함하는 폭력의 유형에 따라 조작적 차이가 생긴다. 데이트 폭력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먼저 언어적 공격을 포함한 심리적 폭력이 있고, 신체적 폭력과 성적 폭력으로 분류된다. 선행연구에서는 신체적 폭력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해온 경향이 있는데, 심리적 폭력까지 포함시키면 그 발생률이 최대 98%에 달하여 연구의 실증적 분석이 어려워진다. 또한 일반적으로 알려진 데이트 폭력의 개념이 신체적 폭력에 국한되어 있는데, 이는 연구결과의 실용화를 위하여 신체적 폭력에 집중하여 연구하기 때문이다(서경현, 2009). 그러나 데이트 폭력 피해는 심리적, 신체적, 성적 폭력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고(Sabina & Straus, 2008), 심리적 폭력이 신체적 폭력의 전조일 수 있다는 연구들(Lloyd, Koval, & Cate, 1989; Stets, 1990; Stets & Henderson, 1991)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범주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데이트 폭력을 정의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김정란(1999)의 정의를 인용하여 데이트 폭력을 ‘결혼하지 않은 이성관계 안에서 한 구성원이 다른 상대방에게 심리적, 신체적, 성적 가해를 하거나 그런 의도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정의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정의 내린 데이트 폭력은 심리적, 신체적, 성적 폭력을 모두 포함한다. 먼저 심리적 폭력은 무시, 협박, 욕설, 모욕과 같은 언어적 폭력을 포함하면서 상대방의 소유물을 파괴하는 것, 불합리한 소유욕 등이 포함되어 있다(Straus, 1991; White & Koss, 1991). 특히 심리적 폭력은 다양한 형태로 빈번하게 나타나며 눈에 잘 드러나지 않아 피해를 가늠하기 어려운 반면, 그 피해가 훨씬 더 심각하고 오래 지속될 수 있다. 다음으로 신체적 폭력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상해를 일으키는 의도를 가지고 힘이나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적 상해를 입히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Riggs, O’Leary, & Breslin, 1990; Straus, Hamby, Boney-McCoy, & Sugarman, 1996). 마지막으로 성적 폭력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음에도 언어적·신체적 위협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을 포함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행위를 하거나 강요하는 행동을 포함한다(Straus et al., 1996). 성적 폭력은 신체적 폭력보다 심각한 수준의 손상을 입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 담론에 개방적이지 않은 사회 특성상 이에 대한 실태 파악이 어렵고 공론화에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그 피해를 줄이고 나아가 예방하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 2) 데이트 폭력의 가해요인

Makepeace에 의해 1980년대 초 데이트 폭력이 학계에서 연구되기 시작하고 지난 30여 년 간 해외에서는 데이트 폭력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수행되

었다. 그 중 대다수의 연구들이 Riggs와 O'Leary(1989)가 제안한 사회학습 이론 모델을 기초로 진행되었는데, 이 모델은 Bandura(1977)가 주장한 사회 학습이론에 근거하여 사람의 행동이 타인의 행동이나 상황을 관찰함으로써 모방을 한다는 것을 기초로 한다. 즉, 아동이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폭력 피해를 당했거나 부모 간에 행해지는 폭력을 목격하면 그것을 모방학습하며 성장하게 되고, 이후 대인관계나 이성관계에서도 폭력을 행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사회학습모델에서는 부모의 학대, 과거의 폭력 경험, 폭력에 대한 허용적 태도 등을 포함하는 사회심리적 요인의 중요성을 주장하며, 더불어 스트레스, 음주, 데이트 상대의 공격적 행동, 갈등의 존재, 관계에 대한 만족도, 폭력에 따르는 이득에 대한 기대 등과 같은 상황적 요인을 함께 다루었다.

데이트 폭력을 설명하는 또 다른 이론으로는 제어이론(Control Theory)이 있다. 제어이론은 사회학습이론에서 주장하는 폭력행동의 학습 측면보다는 타고난 성향에 중점을 두어 설명한다(Hirschi, 1969). Friedman과 Rosenbaum(1988)은 일탈적인 기질을 모든 인간에게 나타나는 본성으로 설명하면서, 폭력적 일탈행동을 유전되는 기질적 차원으로 보았다. Hirschi는 사회적 결속을 통해 일탈 행동을 방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고, 사회적 결속에는 애착(attachment), 신념(belief), 몰입(commitment), 연루(involverment)가 포함된다고 설명하였다. 즉, 개인이 건강한 가정에서 강한 유대감과 애정을 경험한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폭력적인 가정환경과 같이 자녀가 부모와 적절한 애착이 형성될 수 없거나 신념이나 몰입과 같이 관계에서 중요한 요소들을 발달시키지 못한다면 이후 데이트 폭력을 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한다. 이러한 제어이론은 사회학습이론에 비해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다(서경현, 2009). 그러나 한국에서도 제어이론에 기반한 연구가 아예 없었던 것이 아니고, 부모의 양육방식이나 관계에 몰입하는 수준

이 데이트 폭력과 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주지현, 서경현, 2014; 양승애, 서경현, 2015)가 있었고, 이는 Hirschi가 제안한 사회적 결속에 대한 개념을 지지하는 결과였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에서도 제어이론을 바탕으로 한 연구들이 필요하다.

국내의 데이트 폭력 연구는 해외 다양한 이론과 연구들을 바탕으로 10여 년 전부터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서경현(2009)의 개관연구를 비롯하여 Riggs와 O'Leary(1989)가 제안한 사회학습이론 모델에 근거한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등의 폭력경험(김소영, 2010; 문지혜, 2015)과 폭력허용도(유선영, 2000), 분노조절(김유정, 서경현, 2009; 서경현, 2002), 집착행동(양승애, 서경현, 2014; 주지현, 서경현, 2014) 등의 변인들이 데이트 폭력을 설명하는 연구들로 진행되어 왔다. 이와 같은 다양한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데이트 폭력은 여러 개인 내적 특성과 상황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3) 데이트 폭력과 성차

데이트 폭력을 이야기하는데 있어 성차 논쟁은 빠질 수 없는 항목이다. 보통 데이트 폭력의 가·피해자는 각각 남성과 여성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데이트 폭력 관련 연구들에 의하면 성별에 따라 일관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다. 남성이 가해를 더 많이 행하는 결과들이 있긴 하지만(김용미, 1996; 김시원, 박경, 2012), 여성이 남성보다 신체적 폭력을 더 행한다는 결과가 훨씬 많고(양승애, 서경현, 2014; 서경현, 김유정, 정구철, 양승애, 김보연 2010; 강희순, 이은숙, 2014), 두 성별에 따른 가해의 차이가 없다는 결과도 있다(김유정, 서경현, 2009; 김정란, 김경신, 1999). 최근 들어 데이트 폭력의 하나의 형태로서 '양방향 폭력(bidirectional violence)' 개념이

제시되어 남성과 여성 모두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일 수 있음을 강조하는 연구들이 등장하였다. 이는 기존의 관점을 제고할 필요성을 갖게 하며, 여성을 공격의 주체로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Langhinrichsen-Rohling, Misra, Selwyn, & Rohling, 2012; Straus, 2008).

한편으로 여성주의자들은 데이트 폭력 연구에 있어 단지 폭력의 행동적인 빈도에만 과도하게 의존하여 여성의 높은 가해율이 도출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데이트 폭력의 연구에 있어 다양한 맥락적 요인들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먼저, 여성과 남성의 물리적인 힘의 차이와 공격수준을 고려하였을 때 남성의 공격이 더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Dardis, Dixon, Edwards, & Turchik, 2014 재인용; Stark, 2010). 김예정과 김득성(1999)의 연구에서도 데이트 폭력 가해에서 성차가 없었으나 신체적 폭력을 하위문항별로 분석한 결과, 강도 높은 폭력은 남성이 여성보다 많이 가해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Archer(2000)의 메타분석 연구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신체적 공격을 더 많이 보고했지만, 강도 높은 폭력의 가해자는 대부분 남성이라는 것이 검증되었다. 또한 데이트 폭력에서 여성의 가해 동기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자기방어임을 여러 탐색적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이영숙, 2005; 오윤희, 2016; Molidor & Tolman, 1998; Straus, 2008). 폭력의 인식 수준과 폭력의 허용도 수준에서도 여성은 데이트 폭력을 심리적·신체적으로 심각한 폭력으로 지각하는 반면, 남성은 데이트 폭력을 위협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폭력을 최소화하여 인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Molidor & Tolman, 1998). 또한 남성의 경우 폭력에 대한 부정적 시선의 사회적 요망도에 따라 자신의 폭력행동을 축소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보고도 있다(Gray & Foshee, 1997; Makepeace, 1986). 일련의 연구 결과들을 통해 남녀가 비슷한 횟수로 폭력을 사용하더라도 폭력에 내포된 맥락적인 의미가 매우 다르다는 여성주

의자들의 의견을 지지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는 실제 심각한 데이트 폭력 피해자의 대부분이 여성들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고, 데이트 폭력의 연구에 있어 폭력의 빈도에 초점을 맞춘 양적 측면을 넘어 여러 요인들을 함께 고려하여 연구·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2. 내현적 자기에

### 1) 자기에 개념과 하위유형

자기에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증가하면서 자기에적 성격의 개념과 역동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제기되고 여전히 그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 이는 자기에 개념이 여러 하위 유형을 포함하고, 심리적 기제나 발달과정 등에 대해서 이론마다 약간씩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신장애에 대한 진단통계편람 제 3판(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III: DSM-III)부터 자기에적 성격장애의 진단 범주가 등장하면서 자기에의 개념 안에서 다양한 의미의 수렴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즉, 양가적인 자존감(ambivalent self-esteem)과 병리적인 웅대성(pathological grandiosity)이 공존하는 것이 자기에의 핵심이며, 주요문제로 분노감과 공격행동이 강조된다고 하였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그러면서도 자기에 성향자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연구들 간의 불일치 현상(Carroll, Hoeningmann-Stovall, & Whitehead, 1996; Sedikides, Rudich, Gregg, Kumashiro, & Rusbult, 2004)과 자기에 척도들 간의 낮은 상관(Emmons, 1987; Wink, 1991; Wink & Gough, 1990)을 설명하기 위해 자기에 성향을 이질적인 두 집단으로 분류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자기에에 대한 초기 이론들 중에는 자기에 집단을 외현적 자기에와 내

현적 자기애로 구분한 연구들이 있다(Akhtar & Thompson, 1982; Kohut, 1977). 이질적인 두 집단은 자기애라는 공통적인 특성을 공유하면서도 서로 다른 성격적, 행동적 특징들을 가진다는 사실을 주장한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보다 더 역기능적이고 부적응적이라는 연구들이 소개되고 있어 본 연구는 내현적 자기애에 주목하여 데이트 폭력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자기애 성향에 대한 하위유형으로 두 집단에 대해 차별적인 특성을 보고 하는 연구들이 발표되었다.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는 모두 응대하면서도 내면적으로 취약한 자기상을 가진다는 점에서 공통적이거나, 현상적 관찰에 의한 표현양상은 다르게 나타난다. 외현적 자기애의 경우 자기고양적이고 응대성을 과시하며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함으로써 취약한 자기개념을 보호하는 이득을 얻으며(Rose, 2002), 오히려 우울, 소진감 등의 정서는 잘 드러내지 않아 적응적이고 긍정적인 자기개념을 가진 것처럼 타인에게 비취진다(이준득 등, 2007). 반면에 내현적 자기애는 자기고양보다는 자기를 보호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타인의 비난이나 위협될만한 상황을 피함으로써 개인의 주관적 불편감과 다양한 심리적 부적응 문제를 더 많이 경험한다는 점에서 부적응적이라 할 수 있다(Akhtar & Thompson, 1982). 따라서 내현적 자기애 성향 집단은 외현적 자기애 성향의 집단과는 달리 자존감이 낮고 자기개념이 부정적이며, 우울함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더 많이 보고한다(원주식, 2006; Wink, 1991).

내현적 자기애는 타인의 평가나 비판에 민감하여 주위 사람들의 반응을 예민하게 살피고, 쉽게 상처받는 취약성이 주된 특징이다. 이들은 대개 내향적이고 소심하며, 지나치게 감정이 억제되어 있고 무기력하다. 그러나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친밀한 관계에서만 과시적이고 자기도취적 환상을 나타내고 타인이 자신을 좋게 봐주길 바라는 자기애적 성격역동과

기제를 내면에 지니고 있다(권석만, 한수정, 2000). 또한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으며 신경증적인 경향이 높고(정남운, 2001), 관계 내에서 공감과 깊이가 결여되어 있으며 자기중심적으로 현실을 지각하는 특징을 지녀(권석만, 한수정, 2000), 대인관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보고하고 있다(주지영, 이동귀, 2012; 홍서윤, 2014; Akhtar & Thompson, 1982).

한편, 실제 임상가들은 임상적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애에 대하여 병리적인 개념보다도 성격적 특성으로서의 자기애를 연구하기 시작했고, 자기애의 특성 중에서 자기칭찬이나 긍정적인 자기개념 등은 자존감을 높이는 자아방어의 기능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이를 통해 적응적인 형태로 발현하는 자기애적 특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이에 대한 많은 경험적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한수정, 1999). 부정적인 성격의 측면과 관련하여 자기애를 연구한 것이 상당 부분이나 자기애적 특성 안에 적응적인 것과 부적응적인 것이 공존한다는 연구가 있고(Davis, Claridge, & Brewer, 1996; Jackson, Ervin, & Hodge, 1992; Wink, 1991), 이들이 대인지배성이 높은 특징을 활용하여 커뮤니케이션을 주도하려는 성향이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Brown & Millier, 2000). 또한 자기애적 성격을 병리적인 성격장애로만 보는 입장이 아닌 덜 극단적인 형태의 일반적인 성격 범주로 두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시되고 있다(Raskin & Hall, 1981; Emmons, 1987). 따라서 본 연구에서 자기애를 일반인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과장되고 불안정한 자신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라고 정의하여 하나의 안정적인 성격 요인으로서 측정하고자 한다.

## 2) 내현적 자기애와 데이트 폭력 가해

우리나라의 데이트 폭력 관련 연구는 2000년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

되었다. 그 중 데이트 폭력과 성격 요인과의 관련성에 주목하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자기애와의 관계가 확인되고 있다(안귀여루, 2006; Ryan et al., 2008; Wink, 1991).

내현적 자기애는 정서적·심리적으로 여러 영역에서 부적응적인 특성을 지녀 유능감 및 적응성이 부족하고 특히 대인관계에서 큰 손상을 가진다(주지영, 이동귀, 2012; 홍서윤, 2014; Akhtar & Thompson, 1982). 이들의 취약성인 거부에 대한 두려움과 평가에 대한 과민성은 상대방과의 상호작용에서 민감하고 공격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아 친밀한 관계 형성을 방해할 수 있다(Ayduk, Gyurak & Luerssen, 2008). 한편, 자기애 성향자의 연애 태도와 이성관계 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본 황영주(2013)의 연구에서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은 자기비난 경향이 있으면서 더불어 상대방에게도 너그럽지 않다고 나타났다. 또한 관계에 집중을 하면서도 다소 집착하는 부분이 있어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 이성관계 만족도가 낮게 보고되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보영(2015)의 연구에서도 내현적 자기애 성향은 타인과의 관계 내에서 상대를 고려하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인 특징을 보여 이성관계 내에서 만족감을 적게 느낀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일련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내현적 자기애는 친밀한 대상과 밀접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관계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성관계에서는 깊은 수준에서 개인의 성격 특징과 정서 상태가 상호작용하고, 관계 양상에 서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특징적 취약성이 대인관계에서보다 높은 수준으로 촉진될 수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내현적 자기애 성향을 가진 사람은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이성관계에서 부적절한 대처양식을 사용하고, 낮은 만족도를 느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경향성은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이 상대와 관계를 맺기가 어렵도록 만들고, 또 관계에서 불안정한 특성을 가지게 될 수 있다.

한편, 자기에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하위유형에 관계없이 통제집단보다 높은 수준의 분노를 경험하는데 특히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들은 외현적 자기에 성향보다도 분노억압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이준득 등, 2007) 더불어 통제집단 보다 분노표출을 더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백승혜, 현명호, 2008; 조은영, 곽은희, 2012). 또한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는 외현적 자기에 성향자보다 만성적인 분노감이 더 높았고, 타인비하적 사고를 더 자주 하였다(이준득 등, 2007). 분노의 정서는 기능적일 경우 문제 해결적인 행동을 동기화시키며 인간을 적응적이게 한다. 그러나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들이 보고하는 역기능적인 분노표현양식은 외현적 자기에 성향자에 비해 우울이나 불안 같은 심리적 부적응을 훨씬 많이 느끼게 만들고, 억압된 분노가 폭발할 때 충동적이고 극단적이 될 소지가 있다(백승혜, 현명호, 2008). 즉,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들이 분노상황에서 분노표출과 분노억압을 모두 사용하는 것은 타인에게 느껴지는 분노감이나 적대감을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게 하고, 상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지나치게 억제하고 있다가 부적절하게 충동적으로 표출하는 경향을 야기한다. 실제로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들의 역기능적인 분노 성향이 데이트 폭력 가해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기도 하였다(김시원, 박경, 2012).

실제로 외국에서는 자기에와 데이트 폭력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Ryan 외 여러 학자들(2008)은 실제 교제 중인 커플들을 대상으로 데이트 폭력에 대한 자기에의 역할을 연구한 바 있다. 이들은 자기에를 발현양상에 따라 외현적 자기에와 내현적 자기에 그리고 성적 자기에(sexual narcissism)로 구분하여 신체적, 성적 데이트 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내현적 자기에는 외현적 자기에와 성적 자기에보다 신체적 폭력 가해를 설명하는데 더 유의한 영향력을 보였다. 국내에서도 내현적 자기에 성향과 데이트 폭력을 함께 살펴본 연구들이 있지만(김시원, 박경,

2012; 고민정, 김선정, 조서지, 조인경, 2015), 연구 대상자가 청소년이었던 만큼 데이트 폭력을 많이 경험한다고 보고되는 성인 초기 미혼남녀의 내현적 자기에 성향과 데이트 폭력 가해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 3. 부정적 자동사고

#### 1) 자동적 사고의 정의

대표적인 인지치료 학자인 Ellis(1962)는 인간에게 나타나는 정서·행동적 문제는 비현실적이고 비논리적인 비합리적 신념에 의해 일어난다고 주장하였다. Beck(1967) 역시 유발 사건에 의해 활성화된 역기능적 신념과 우울 증상 사이를 자동적 사고가 매개하고 있다는 인지매개이론을 제안하여 심리적 문제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자동적 사고는 개인이 특정 상황에 놓였을 때 자신이 처한 상황의 위협성이나 본인의 대처능력 등에 대하여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구체적인 생각이나 영상으로 간주된다(권정혜, 1993; Fennell, 1989). 이 때 개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해석의 내용에 따라 긍정적 자동사고와 부정적 자동사고로 분류할 수 있다. 부정적 자동사고는 그 내용이 자기비하적이고 자신의 미래나 주변 세상에 관해 부정적이면서 암담하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의 사고를 자주 경험하는 사람은 환경적인 사건이나 상황을 부정적인 의미로 체계적인 왜곡을 하는 경향이 있다(Beck, Rush, Shaw, & Emery, 1979). Ellis(1973)와 Beck(1976)은 비합리적 신념이나 자동적 사고가 심리적 장애나 부정적인 정서의 유발 과정에 결정적으로 관여하고 있으며, 이를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사고로 변화시키는 것이 인지치료의 주요 과정임을 강조하였다. 특히 비합

리적 신념이나 역기능적 신념은 쉽게 지각되지 않는데 비해, 자동적 사고는 비교적 의식 가까이에 있어서 쉽게 인식할 수 있다(서수균, 권석만, 2005a).

Ellis(1973)와 Beck(1976)이 주장한 인지매개모형에서 유발될 수 있는 부정적 정서에는 분노를 비롯해서 우울, 불안, 공포 등의 다양한 것들이 있다. 그 중에서도 분노관련 인지적 취약성을 이해하기 위해 분노를 경험할 때 주관적인 의미 부여나 해석으로 나타나는 분노사고들 또한 분노유발에 기여하는 ‘자동적 사고’라 명명하였다(서수균, 권석만, 2005a; 구지은, 송현주, 2010). 구체적으로 서수균과 권석만(2005a; 2005b)은 여러 인지 이론들(Beck, 2000; Deffenbacher & Mckay, 2000; Lazarus, 1991)을 정교화하여 어떤 상황을 겪으며 활성화된 역기능적 신념으로 인해 분노사고가 일어나고 이는 역기능적인 분노표현으로 분노표출 혹은 분노억제를 유발한다는 이중 인지매개모형을 제안하였다. 그 중에서도 분노를 일으키는 상황을 경험한 직후 그 상황에 대해 부정적으로 해석하며 평가하는 과정이 이루어지는 자동적 사고를 일차적 분노사고라고 하였다. 일차적 분노사고는 타인의 이기적이고 합당하지 않은 행동에 대한 예민함과 친밀함을 느끼는 관계에서 경험하는 무시와 실망감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관계 내 분노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동적 사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2) 내현적 자기애와 부정적 자동사고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의 심리적 기저에는 거대한 자기상이 있지만 표면적으로 이들은 자기비하적 사고와 열등감을 표출하여 다소 비일관되고 불안정한 특성을 형성한다(Akhtar & Thompson, 1982). 따라서 이들은 두 가지 자기상의 간격을 적절히 해소하지 못하여 부적절감을 느끼게 되고, 취약한 자존감으로 불안과 우울감이 높으며, 걱정을 많이 하는 편이다. 결국 대

인관계에서 자신의 위치나 상황에 지나치게 민감하고 타인의 반응에 예민한 모습을 보이는데(Akhtar & Thompson, 1982), 이렇듯 과민한 특성은 ‘나는 상처받아서 안 되고, 거절당해서도 안 되며, 못하는 것이 있거나 밍보이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완벽주의적 사고가 강하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즉,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들의 내면 깊은 곳에 지니고 있는 자기애적인 성격 역동과 기제가 거절이나 부정적 평가를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를 ‘자기애적’ 혹은 ‘자기도취적’이라고 개념화할 수 있다(권석만, 한수정, 2000).

Akhtar와 Thompson(1982)은 자기애가 자기개념, 대인관계, 사회적 적응, 윤리와 규범과 이상, 사랑과 성, 인지적 유형 까지 6가지 기능영역에 결함이 있다고 보고, 외현적인 것과 내현적인 것으로 구분하여 자세히 기술하였다. 그 중에서도 대인관계 영역에서 내현적 자기애는 타인에 대한 만성적인 이상화와 강한 질투심, 칭찬에 대한 요구적 태도 등을 특징으로 한다. 인지적 양식에서 내현적 특성은, 사건의 객관적 측면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중심으로 초점화하며 자존감이 위협될 때 현실의 의미를 바꾸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내현적 자기애 성향은 관계상황 혹은 사건에 대하여 적응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하기보다 자기개념을 보호하기 위한 스스로의 인지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내현적 자기애는 외현적 자기애보다 부적응적 인지정서조절 전략의 하위요인인 자기비판, 타인비난, 파국화 등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최정인, 2009; 김진희, 2011). 특히 내현적 자기애는 파국화와 가장 높은 상관관을 보였는데 파국화는 경험의 공포스러운 면을 강조하면서 극단적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분노반응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인지적 오류 중 하나이며, 사건에 대해 극단적이고 부정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분노를 유발하는 경향이 있다(서수균, 2011; Deffenbacher, 2011). 즉,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외현

적 자기애나 통제 집단에 비해 사건을 부정적으로 귀인하고, 이를 통해 부정적인 사건을 겪을 때 주로 사건을 극단적으로 생각하여 정서조절에 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더불어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끊임없이 자신에게 비현실적인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완벽주의와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거절당할 것을 두려워하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주된 특징으로 한다는 연구들(이진숙, 현명호, 2012; 김성주, 이영순, 2015)을 통해 부정적 자동사고와의 관련성을 유추해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을 종합해볼 때, 내현적 자기애 성향의 경우 자신과 타인 그리고 세상 대해 현실적이지 않은 기대와 해석을 하는 부정적 자동사고를 나타낼 수 있다고 예측해볼 수 있다.

실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많은 국내 연구에서 내현적 자기애 수준이 높을수록 부정적 자동사고 혹은 비합리적 신념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찾아볼 수 있다(김정균, 장석진, 2014; 주지영, 이동귀, 2012; 신현민, 2009; 안지현, 이승연, 2013). 또한 내현적 자기애 성향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인지적 요인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을수록 비합리적 신념, 분노경험, 분노표출 수준이 높고(서수균, 2007),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이 비합리적 신념을 통해 관계적 공격성을 강화시킨다고 밝혔다(김정균, 장석진, 2014). 또한 김지민과 홍혜영(2013)은 내현적 자기애와 이성관계 만족도에서 관계진술성의 매개효과가 나타나,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진술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연구자들은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이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에 있어 어떠한 비합리적인 신념이 있을 수 있는지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은 건강한 대처양식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기보다 왜곡된 사고를 통해 공격성, 분노표현과 같은 부적응적인 양상을 보일 수 있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즉,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은 과

장된 자기개념과 자기중심적인 사고, 타인의 평가나 반응에 민감하여 자존감이 쉽게 위협받는 취약한 자기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긍정적 자아상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공격성이 발현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자신과 타인에 대해 과도한 기준의 요구와 기대를 일으키는 역기능적 사고를 통해 그 공격성이 가중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3) 부정적 자동사고와 데이트 폭력 가해

관계에 대한 신념이란 사람들이 경험을 통해 얻게 되는 개인만의 인지도식으로 태도나 감정, 기준, 기대를 포함하는 비교적 안정적인 사고이다(Stackert & Bursik, 2003). 합리적 정서 행동 이론(REBT)에서는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심각한 갈등의 주원인을 서로에 대한 정서적 문제와 비합리적 신념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Ellis, 1986). Eidelson과 Epstein(1982)은 관계신념 질문지 개발을 통해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비합리적 신념을 다섯 가지 하위 영역으로 설명하였다. 관계 내 비합리적 신념으로는 먼저, 의견 불일치는 곧 파멸이라는 신념, 독심술이 가능하다는 신념, 데이트 상대가 변화할 가능성이 없고 그들 관계의 질 역시 변화시킬 수 없다는 신념, 서로에게 성적으로 완벽한 상대가 되어야 한다는 신념, 마지막으로 남성과 여성이 서로 완전히 다르다고 믿는 신념이 포함된다. Ellis(1986)는 합리적 정서 행동 이론에서 부부 간 상호작용에서 장애를 불러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은 서로가 가지고 있는 비합리적 신념뿐만 아니라 관계 그 자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인 사고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성관계에서 관계신념과 같은 비현실적이고 당위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다면 그 기대가 좌절될 때마다 실망과 오해를 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비현실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이성관계

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더욱 심각하거나 왜곡된 문제로 해석하고 위협으로 느낄 수 있다(Epstein, Finnegan & Bythell, 1979). 부부관계를 연구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비합리적 신념이 결혼만족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대표적인 인지현상이라고 나타났다(강유진, 옥선화, 2005). 또한 관계에서 나타나는 비합리적 신념이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이나 비효율적인 대처방식을 야기하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임을 감안하면 부부관계에 대한 비합리적 신념에 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연구진, 연문희, 양지웅, 2013).

한편 사회정보처리 모델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공격행동의 유발은 사건의 단서나 의도를 어떻게 지각하느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나타난다(이영애, 2000). 실제로 비합리적 신념 혹은 자동적 사고와 공격성의 관련성이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는데(박정녀, 최해림, 2005; 서수균, 2011), 공격적인 사람은 갈등의 원인과 책임 등을 왜곡해서 귀인하고 상황 혹은 단서를 부정적으로 해석하며, 비슷한 사건에 대한 경험적 기억으로 현재의 상황을 해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면한 사건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공격적인 행동이 단순히 외부의 자극에 의해 촉발되는 것보다, 상황에 대한 개인의 해석이나 평가에 기인한다고 본다. 따라서 부정적 자동사고와 같은 역기능적 신념은 관계 내에서 부적응적인 대처를 불러일으키고, 나아가 공격적인 행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여겨진다.

실제로 Eckhardt와 Jamison(2002)는 이성관계 내 신체적 폭력 경험이 있는 17명의 남성과 폭력 경험이 없는 16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분노자극 테이프를 듣고 나타나는 비합리적 신념, 인지왜곡, 분노 조절 등을 기록한 결과, 신체적 폭력 경험이 있는 남성들이 없는 남성들 보다 비합리적 신념, 인지왜곡 수준이 높았고 분노 조절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폭력적인 성향의 남성들은 갈등의 원인을 자동적으로 배우자의 부정적인 특성이나 적대적인 태도에 귀인하며, 배우자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행동한다고 지각하

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질투심, 거부, 공개적 상황에서의 곤란함 등과 관련된 상황에 놓이면 적대적인 귀인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나타났다(Holtzworth-Munroe & Hutchinson, 1993). 또한 폭력적인 남성들은 결혼 생활에서 나타나는 갈등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는데, 이러한 인지 구조는 데이트 폭력의 이유가 될 수 있다(Eckhardt & Dye, 2000; Makin-Byrd & Azar, 2011).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이성관계에서 데이트 상대 혹은 상황에 대한 부정적 자동사고와 데이트 폭력 가해의 관련성을 유추해볼 수 있다.

#### 4. 집착행동

##### 1) 집착행동의 정의

집착(執着)의 사전적 정의는 ‘어떤 일에만 마음이 쏠려 잊지 못하고 매달림’(국립국어원)이다. 윤호균(1999)은 심리적인 문제를 아집(我執)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자신과 세상을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는 것은 공상이며, 그러한 공상으로 부터 벗어나지 못한다면 필연적으로 괴로울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즉, 괴로움을 일으키는 상태를 집착으로 보고 괴로움을 멈추기 위해서는 집착을 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윤호균(2001)은 집착을 ‘과거의 경험이나 기존의 관념·기억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이나 사물 또는 사건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특정한 방향으로 지각하거나 생각하거나 느끼거나 의도하도록 조건화된 상태’라고 정의하였다. 이처럼 집착의 대상 혹은 내용에 사로잡히면 마음이 경직되고 지금-여기의 순간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양한 심리적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윤호균, 2001; 김은희, 2002).

한편 집착 상태는 이성관계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온통 파트너에게 마음을 쓰게 되고 매달리며 유연하지 못한 사고와 행동을 보인다(양서연, 2011). 국외 연구에서 Feeney와 Noller(1990)는 이성관계 내 집착을 사랑의 중독 상태로 보았고, Hatfield와 Sprecher(1986)는 열정적인 사랑이 지나친 수준일 때 드러나는 불안 혹은 두려움, 질투, 분노나 불쾌감을 불러일으키는 상태로 설명하였다. 따라서 집착은 그 수준이 과도할 경우 관계적 차원에서 이성관계에 위협적인 방해요인일 뿐만 아니라 갈등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며, 심지어는 관계를 파기하게 하는 관계파탄의 행동이라는 것이 밝혀졌지만(권희경, 장재홍, 권영민, 2005; Baxter, 1990) 스스로 중단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Tennove, 1979).

이성교제 안에서의 집착을 일컫는 용어들은 관계집착, 집착성향, 집착행동 등 다양하게 혼용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성관계에서 발생하는 집착행동을 구체적으로 개념화한 우아미(2008)의 집착행동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성교제 시 발생하는 집착행동은 ‘파트너에 대해 강하게 몰두하거나 의존하는 것으로, 파트너의 사랑을 잠시라도 느끼지 못할 때 불안해하고 계속 사랑을 확인하려는 행동’(우아미, 박준성, 정태연, 2008)으로 정의할 수 있다. 우아미(2008)의 연구에서 개념화한 집착행동은 5가지의 구성요인을 가지는데 파트너와 늘 함께 있기를 원하고 그림으로써 자신을 완전하게 느끼거나 안정을 느끼게 되는 ‘외로움과 불완전감’, 상대에게 거절을 당할까 불안해하는 ‘거부 두려움’, 파트너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질투를 느끼는 ‘질투심’, 파트너의 애정을 의심하는 ‘의심’, 사랑하는 사람의 행동에 매우 민감하여 애정을 확인하려는 ‘과민성’이 포함된다.

## 2) 내현적 자기애와 집착행동

Akhtar와 Thompson(1982)가 묘사한 자기애의 6가지 기능영역 특성 중 사랑과 성의 측면에서 내현적 자기애 성향은 사랑을 오래 지속하지 못하고 사랑의 대상을 자신의 연장으로 보아 서로 분리가 어려우며, 성도착적인 환상이나 성적 일탈이 있을 수 있다고 기술하였다. 특히 자기애 성향은 질투가 강하고 사랑을 독점하고 싶어 하며, 타인에 대한 시기심이 강해 그 시기심에 대한 방어로서 불안한 애착관계 혹은 회피적 태도를 취하는 특징을 보인다(Kernberg, 1975). 이러한 특징은 사랑을 유형별로 체계적으로 구성한 Lee(1988)의 다섯 가지 유형 중 극심한 질투와 과도한 의존성을 주요 특징으로 가지는 ‘소유적 사랑’에 근접하다. 소유적 사랑의 경우 항상 사랑받고 있다는 확인을 필요로 하고, 상대방부터 더 높은 수준의 애정과 관심을 요구하여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의 타인에 대한 착취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태도와 비슷한 특징을 가진다. 또한 소유적 사랑을 하는 이들은 상대방부터 자신이 주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랑을 요구하기 때문에 관계에 냉정하지 못하고, 자신이 필요로 하는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극단적인 일을 감행하기도 한다.

자기애 성향과 사랑 유형의 관계를 살펴본 박지현(2009)에 따르면 내현적 자기애는 소유적 사랑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외현적 자기애보다 더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특히 소유적 사랑의 모든 하위 요인에서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내현적 자기애의 질투와 시기가 강하고 사랑을 독점하고 싶은 특징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내현적 자기애와 소유적 사랑의 관계에서 불안 애착이 부분 매개하는 것을 확인하여(박지현, 2009) 내현적 자기애가 타인과 상호작용을 하는데 있어 높은 불안과 거부 두려움을 느끼며, 데이트 상대에게 끊임없이 인정받고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과도한 의존 성향을 짐작할 수 있다(홍성례, 2007). 또 다른 연구에서는 사랑에 대한 환상이 높을수록 집착행동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고 했는데(양서연, 2011), 따라서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들이 갖는 데이트 상대에 대한 높은 기대와 요구적 태도 또한 집착행동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이성관계에 있어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들의 강한 시기와 질투, 끊임없는 사랑 확인과 지배적이고 착취적인 태도로 인한 내현적 자기에 성향과 집착행동의 관련성을 추측해 볼 수 있으나, 아직까지 국내의 연구에서는 확인된 바가 없다.

### 3) 집착행동과 데이트 폭력 가해

Davis, Ace와 Andra(2000)는 불안정 애착을 보이는 대학생들이 심리적 학대 행동을 더 많이 드러내는 것으로 보고했다. 그 중에서도 상대가 떠나버릴지 모른다는 과도한 걱정을 특징으로 하는 두려움 애착과 상대에게 집착하는 성향의 몰두형 애착을 통틀어 불안정 애착으로 정의하면서, 불안정 애착이 이성관계에서 상대에 대한 폭력을 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Wheeler(2002)의 연구에서도 몰두형 애착이 데이트 폭력과 상관이 있다고 나타나, 상대에 대한 집착이 데이트 폭력 가·피해를 일으키게 할 가능성을 암시하였다. 실제로 Follingstad, Bradley, Helff와 Laughlin(2002)의 연구에서 불안정 애착을 보고하는 사람들은 연인 간의 관계를 위협하는 잠재적인 단서에 쉽게 분노를 일으키고, 상대를 통제하기 위해 데이트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고, Dutton(1998)에 의해 집착 성향을 특징으로 하는 불안 애착과 분노 기질이 데이트 상대를 조절하기 위한 폭력 가해와 관계가 높다는 것이 개념화된 바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전형적인 데이트 폭력 가해나 피해 사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상대에 대한 집착이라는 주장이 제시되고 있다(서경현, 2001; 양승애, 서경현, 2014; 주지현, 서경현, 2015; Levy, 1990). 특히 주지현과 서경현(2015)의 연구에서 집착행동의 하위요인 중에 데이트 상대의 애정에 대한 '의심'이 데이트 폭력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의처증이나 의부증에서 볼 수 있는 편집증적 기질이 가정폭력으로 이어진다는 설명(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양승애와 서경현(2014)의 연구에서도 집착성향이 데이트 폭력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 밝혀져, 데이트 상대에게 의존하거나 소유욕이 강할수록 신체적 폭력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남성의 성적 폭력과의 관련이 있었다. 이상의 국내외 연구들에서 이성관계 내 집착행동이 데이트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성관계에서 나타나는 집착행동이 데이트 폭력 가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자 하였다.

#### 4) 부정적 자동사고와 집착행동

집착행동의 하위요인에 해당하는 외로움과 불완전감, 거부 두려움, 질투심, 의심, 과민성은 애정관계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선행연구들과 일치하여 나타났다(우아미, 2008). 또한 집착행동을 하는 이유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너무 사랑해서', '파트너가 인기가 많아서', '파트너의 관심과 애정이 적음을 느낄 때' 등 다양한 이유들이 기술되어 개인의 성격특성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상황변인이 고려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우아미, 2008). 따라서 이성관계에서 나타나는 집착행동은 개인 내적 요인에 더해 상황에 대한 개인의 기대 및 해석에서 기인할 수 있다고 예측해볼 수 있다. 전성규와 이영호(2013)의 연구에서도 집착행동은 개인이 가진 심리적 특성과 관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변인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즉, 데이

트 상대의 행동이나 어떠한 상황에 대해 부정적으로 귀인하는 인지도식이 불안이나 걱정을 증폭시켜 이성관계 내 집착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대학생의 집착 성향을 살펴본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집착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요인으로서 부정적 자동사고와의 관련성을 일관되게 보고하였다(원상희, 허승, 2004; 김홍석, 이정희, 정경연, 2012). 원상희와 허승(2004)은 윤호균(2001)의 정의에 따라 집착을 개념화하였을 때, 집착으로 인한 부적응적 경향성을 부정적 자동사고로 설명하였다. 즉, 집착성향이 있는 사람은 집착하는 사람, 사물 혹은 사건에 대한 부정적 자동사고로 인하여 자유롭고 다양한 가능성을 추구할 수 없게 된다. 특히 관계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연애 기간이 늘어나면서 현상을 왜곡하거나 축소 혹은 확대시켜 자기중심적이고 방어적으로 해석하게 되며(김은희, 2002), 문제해결에 있어 부적절한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다(윤호균, 2001). 또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동적 사고와 편집증의 관계를 살펴본 이훈진(1998)의 연구에서 편집 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자동적 사고가 높게 나타났고, 자동적 사고는 편집 척도 변량의 25.32%를 설명해 역기능적 태도나 자기 개념보다도 예언력이 높게 나타났으며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후 이훈진(1998)의 연구를 발전시킨 한일지와 이영호(2010)의 연구에서도 부정적 자동사고와 적대적 자동사고가 편집 증상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보고되어 일관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경직된 사고, 질투, 의심과 같이 집착행동과 비슷한 맥락으로 기능하는 편집 성향이 부정적 자동사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들을 통해 부정적 자동사고와 집착행동의 연관성이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내현적 자기애가 데이트 폭력 가해에 직접 효과를 가지며, 부정적 자동사고와 집착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하고 각각의 직접 경로를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부정적 자동사

고가 집착행동과 데이트 폭력 가해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집착행동이 데이트 폭력 가해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하여 직접 경로를 설정하였다. 종합하면, 내현적 자기애와 데이트 폭력 가해의 관계를 부정적 자동사고와 집착행동이 부분적으로 매개할 것이라 보았으며, 더불어 부정적 자동사고와 집착행동이 순차적으로 이중매개할 것으로 보고, 이를 연구모형으로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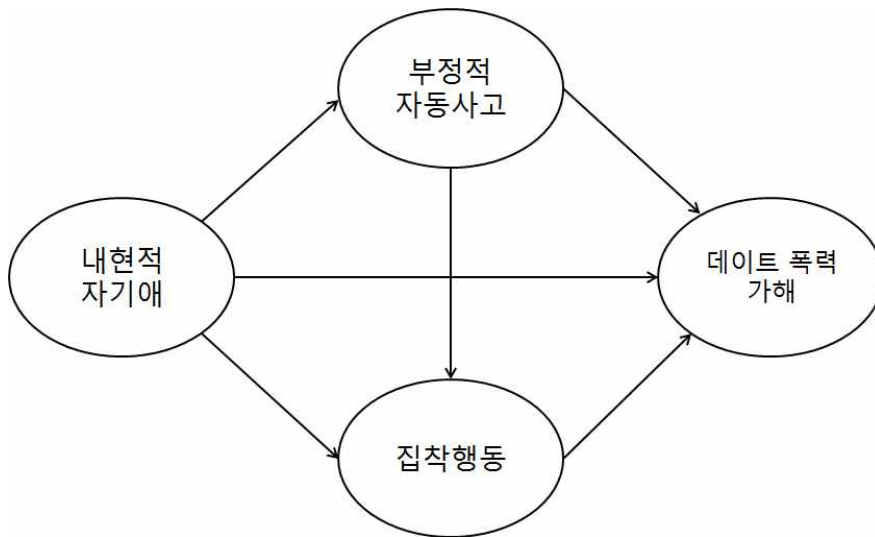
### Ⅲ. 연구모형 및 연구문제

#### 1. 연구모형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데이트 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정적 자동사고와 집착행동의 매개효과를 직접 밝힌 연구는 많지 않으나, 각각의 변인들의 관계를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연구들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선행연구들은 개인 내적 요인 중 특히 성격 요인으로서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데이트 폭력 가해로 이어진다는 결과를 발표해왔다.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고 역기능적인 분노양식을 사용하며, 대인관계 혹은 이성관계 내 문제와 관련이 깊다는 연구결과를 통해 내현적 자기가 데이트 폭력 가해로 이어질 것이라 가정하였다. 또한 내현적 자기와 데이트 폭력 가해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의 선정에 있어서 사랑을 독점하고 데이트 상대에 대한 높은 기대 및 과도한 의존을 특징으로 하는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들이 데이트 상대에게 집착행동을 보일 것이라 가정하였다. 집착행동은 개인이 이성관계에 대해 부정적으로 귀인하는 인지도식 즉, 부정적 자동사고와의 관련성과 더불어 데이트 폭력 가해의 주요 예언 변인으로서 나타나고 있다. 부정적 자동사고는 비합리적 신념과 이론적 궤를 같이 하는 요인으로서, 부정적 자동사고를 비롯하여 비합리적 신념이 분노 및 공격성, 데이트 폭력 가해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를 통해 부정적 자동사고와 데이트 폭력 가해의 관련성도 예상된다. 특히 부정적 자동사고가 데이트 폭력 가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정서조절에 있어 인지적 전략이 행동적 전략에 선행한다는 연구결과(Garnefski, Kraaij, & Spinhovne, 2001)를 통해 데이트 폭력 가해 유발 과정에서 부정적 자동사고가 선행하고, 집착행동이라는 행동 요인이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애와 데이트 폭력 가해의 관련성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부정적 자동차사고와 집착행동의 순차 이중매개 경로를 제시하였다.

선행연구들을 종합한 결과, 데이트 폭력 가해는 개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가변적이고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적 요인에 의한 복합적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데이트 폭력 가해의 원인론적 이해를 돕기 위해 성격 요인으로서 내현적 자기애, 인지 요인으로서 부정적 자동차사고, 행동 요인으로서 집착행동을 매개로 하여 데이트 폭력 가해에 이르는 연구모형을 [그림 1]과 같이 설정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내현적 자기애 성향의 초기 성인이 겪을 수 있는 데이트 폭력 가·피해의 중재 및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요인을 탐색할 것이다. 또한 연구를 통해 부정적 자동차사고와 집착행동의 매개효과가 밝혀진다면 비교적 일관되고 안정적인 성격 요인인 내현적 자기애 성향보다 상대적으로 변화 가능한 인지·행동 요인을 확인함으로써 상담 장면에서 효율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경험적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1] 연구모형

##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내현적 자기애, 부정적 자동사고, 집착행동, 데이트 폭력 가해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가설 1-1. 내현적 자기애와 데이트 폭력 가해는 정적 상관이 있을 것이다.

가설 1-2. 내현적 자기애와 부정적 자동사고는 정적 상관이 있을 것이다.

가설 1-3. 내현적 자기애와 집착행동은 정적 상관이 있을 것이다.

가설 1-4. 부정적 자동사고와 집착행동은 정적 상관이 있을 것이다.

가설 1-5. 부정적 자동사고와 데이트 폭력 가해는 정적 상관이 있을 것이다.

가설 1-6. 집착행동은 데이트 폭력 가해와 정적 상관이 있을 것이다.

### 연구문제 2. 내현적 자기애와 데이트 폭력 가해의 관계에서 부정적 자동사고와 집착행동이 매개하는가?

가설 2-1. 내현적 자기애와 데이트 폭력 가해의 관계에서 부정적 자동사고가 매개할 것이다.

가설 2-2. 내현적 자기애와 데이트 폭력 가해의 관계에서 집착행동이 매개할 것이다.

가설 2-3. 내현적 자기애와 데이트 폭력 가해의 관계에서 부정적 자동사고와 집착행동이 이중매개할 것이다.

## IV. 연구방법

### 1. 연구절차 및 대상

본 연구는 내현적 자기애와 데이트 폭력 가해의 관계에서 부정적 자동사고와 집착행동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2017년 3월 25일부터 5월 11일까지 성인초기에 해당하는 만 18세~35세의 미혼남녀 350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자 수는 지난 10년 동안 한국에서 수행된 데이트 폭력 가해 연구 20개를 검토한 결과, 최저 288명(양난미, 2009)에서 최고 1,399명(박미랑, 2009)으로 나타나 최저 연구 대상자수를 기준으로 탈락율을 고려하여 설문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중 문항의 일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무작위 응답을 하는 등 불성실하게 응답한 경우와 이성교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61명을 제외하고 총 289명의 자료가 사용되었다. 연구의 특성상 이성교제 경험이 한 번 이상 있는 사람만을 연구에 포함하였으며, 대상자를 임의로 표집하여 오프라인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에 대한 답례품으로는 500원 상당의 문구용품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에 포함된 미혼남녀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총 289명으로 여자 171명(59.2%), 남자 118명(40.8%)이다. 연령은 만 18세부터 35세 사이에 분포하고 있으며, 24-26세가 101명(34.9%)으로 가장 많았다. 평균연령은 24.7세( $SD=3.62$ )로 20대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학력은 대학교 재학이 121명(41.9%)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교 졸업 104명(36.0%), 대학원 재학 48명(16.6%), 기타 12명(4.2%), 고등학교 졸업 4명(1.4%)으로 나타났다. 직업 또한 대학생이 121명(41.9%)으로 가장 많았고, 회사원 80명(27.7%), 대학원생 42명(14.5%), 기타 25명(8.7%), 무직 16명(5.5%), 자영업 5명(1.7%)으로 나타났다. 그 외 거주형태는 자택이 174명

(60.2%)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취 87명(30.1%), 기숙사 22명(7.6%), 친척집 4명(1.4%), 기타 2명(0.7%)으로 나타났다.

<표 1>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289)

특성	구분	빈도(%)
성별	여	171(59.2)
	남	118(40.8)
연령 (M=24.7)	18-20세	44(15.3)
	21-23세	63(21.8)
	24-26세	101(34.9)
	27-29세	52(18.0)
	30-32세	22(7.6)
	33-35세	7(2.4)
학력	고등학교 중퇴	-
	고등학교 졸업	4(1.4)
	대학교 재학	121(41.9)
	대학교 졸업	104(36.0)
	대학원 재학	48(16.6)
	대학원 졸업	12(4.2)
직업	대학생	121(41.9)
	대학원생	42(14.5)
	무직	16(5.5)
	회사원	80(27.7)
	자영업	5(1.7)
	기타	25(8.7)
거주형태	자택	174(60.2)
	자취	87(30.1)
	하숙	-
	친척집	4(1.4)
	기숙사	22(7.6)
	기타	2(0.7)

본 연구 특성상 연구 대상자들의 이성교제경험 특성 및 실태를 살펴보았으며, 그 내용은 <표 2>에 제시하였다. 이성교제경험 빈도에 있어서는 전체 응답자의 85명(29.3%)이 5회 이상의 이성교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이성교제경험이 3회인 응답자가 62명(21.5%), 2회 56명(19.4%), 1회 45명(15.6%), 4회 41명(14.2%)으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자들이 경험한 총 교제기간을 살펴보면, 4년 이상이 130명(4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년-2년 미만이 60명(20.7%), 2년-3년 미만이 39명(13.5%), 3년-4년 미만 35명(12.1%), 6개월-1년 미만이 13명(4.5%), 6개월 미만이 12명(4.2%)으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자 289명 중 165명에 해당하는 57.1%의 전체 교제기간이 3년 이상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평균 교제기간을 살펴보면, 1년-2년 미만이 83명(28.7%)으로 가장 많았고, 6개월-1년 미만이 68명(23.5%), 6개월 미만이 54명(18.7%), 2년-3년 미만이 47명(16.3%), 3년-4년 미만이 22명(7.6%), 4년 이상이 15명(5.2%)과 같은 순서를 나타냈다.

<표 2> 연구 대상자의 이성교제경험 특성

(N=289)

변인	구분	빈도(백분율)
이성교제경험 횟수	1회	45(15.6)
	2회	56(19.4)
	3회	62(21.5)
	4회	41(14.2)
	5회 이상	85(29.3)
	총 교제기간	6개월 미만
6개월-1년 미만		13(4.5)
1년-2년 미만		60(20.7)
2년-3년 미만		39(13.5)
3년-4년 미만		35(12.1)
4년 이상		130(45.0)
평균 교제기간	6개월 미만	54(18.7)
	6개월-1년 미만	68(23.5)
	1년-2년 미만	83(28.7)
	2년-3년 미만	47(16.3)
	3년-4년 미만	22(7.6)
	4년 이상	15(5.2)

## 2. 측정 도구

### 1) 내현적 자기에 척도

본 연구에서는 Akhtar와 Thompson(1982)이 개발한 자기에적 성격장애의 임상적 특성을 기초로 하여 강선희와 정남운(2002)이 적절한 문항을 빌려오거나 새로운 문항을 개발 및 보완하여 완성한 내현적 자기에 척도(Covert Narcissism Scale: CNS)를 사용하였다. 척도는 모두 4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Likert 척도로 반응하도록 되어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높음을 뜻하며 5개 하위요인으로 이뤄졌다. 하위요인을 보면 ‘인정욕구/거대자기 환상’, ‘착취/자기중심성’, ‘목표불안정’, ‘과민/취약성’, ‘소심/자신감 부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강선희, 정남운(2002)의 연구에서 전체 Cronbach’s  $\alpha$ 는 .90으로 나타났으며, 각 하위요인의 내적합치도는 목표불안정 .89, 인정욕구/거대자기환상 .83, 착취/자기중심성 .81, 과민/취약성 .87, 소심/자신감부족 .79이었다. 본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Cronbach’s  $\alpha$ 는 .92이었으며, 목표불안정 .88, 인정욕구/거대자기환상 .79, 착취/자기중심성 .77, 과민/취약성 .86, 소심/자신감부족 .90으로 나타났다.

<표 3> 내현적 자기에 척도의 문항구성

하위요인	문항 수	문항번호	Cronbach’s $\alpha$
목표불안정	9	5, 15, 20*, 23, 29, 30, 37*, 42, 44	.92
인정욕구/ 거대자기환상	9	2, 6, 7, 13, 17, 24, 33, 38, 43	.79
착취/ 자기중심성	9	4, 9, 11, 12, 16, 22, 27, 35, 45	.77

과민/취약성	10	3, 8, 10, 14, 19, 25, 26, 31, 36, 40	.86
소심/ 자신감부족	8	1, 18, 21, 28, 32, 34*, 39, 41	.80
전체	45	1~45	.92

\*은 역채점 문항

## 2) 부정적 자동사고 척도

본 연구에서는 서수균과 권석만(2005b)이 분노유발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차적 분노사고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일차적 분노사고 척도(Anger-Thought Scale)를 부정적 자동사고의 측정 도구로 사용하였다. 일차적 분노사고는 서수균과 권석만(2005a)이 주장한 이중인지매개모델에서 등장한 것으로 분노유발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및 해석을 주 내용으로 하는 자동적 사고이다. 이 척도는 구체적인 분노유발 상황에서 타인이 자신을 배려하지 않고 무시하거나 존중하지 않는 것에 대한 예민성을 반영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들에서 사용되어온 부정적 자동사고 척도의 내용보다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하여 관계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징을 잘 설명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제시되는 분노유발 상황에서 경험할 수 있는 부정적 사고 문항에 대해 ‘전혀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부터 ‘항상 이런 생각을 한다’까지 5점 Likert 척도로 반응하도록 되어있다. 하위요인을 보면, ‘타인의 부당하고 이기적인 행동에 대한 예민성’ 11문항, ‘친밀한 관계에서 경험하는 무시와 실망감’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서수균과 권석만(2005b)의 연구에서 전체 Cronbach’s  $\alpha$ 는 .90, 각 하위요인의 내적합치도는 타인의 부당하고 이기적인 행동에 대한 예민성 .86, 친밀한 관계에서 경험하는 무시와 실망감 .80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Cronbach’s  $\alpha$ 는 .92이었으며, 타

인의 부당하고 이기적인 행동에 대한 예민성 .86, 친밀한 관계에서 경험하는 무시와 실망감 .86으로 나타났다.

<표 4> 부정적 자동사고 척도의 문항구성

하위요인	문항 수	문항번호	Cronbach's $\alpha$
타인의 부당하고 이기적인 행동에 대한 예민성	11	8, 9, 10, 12, 13, 14, 16, 17, 18, 19, 20	.86
친밀한 관계에서 경험하는 무시와 실망감	9	1, 2, 3, 4, 5, 6, 7, 11, 15	.86
전체	20	1~20	.92

### 3) 집착행동 척도

본 연구에서는 우아미(2008)가 개발한 집착행동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이성관계에서 발생하는 집착행동을 측정하며, 5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요인을 보면, 파트너의 애정에 대해 믿지 못하는 '의심' 11 문항, 파트너에게 거절당하지 않을지 불안해하는 행동의 '거부 두려움' 10 문항, 파트너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질투를 느끼며 파트너를 독점하고 싶어 하는 행동의 '질투심' 6 문항, 파트너와 늘 함께 있기를 원하고 그럼으로써 자신을 완전하게 느끼거나 안정하다고 생각하는 '외로움/불완전감' 5 문항, 사랑하는 사람의 행동에 매우 민감하여서 나에 대한 애정을 확인하려는 '과민성' 6 문항이다. 모두 38 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항상 그렇다'의 5점 Likert 척도로 반응하도록 되어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집착과 데이트 폭력 간의 관계를 확인한 주지현과 서경현(2015)의 연구에서 전체 Cronbach's  $\alpha$ 는 .96으로 나타났으며, 각 하위요인의 내적합치도는 이성관계에서 느끼는

의심 .90, 거부두려움 .89, 질투심 .90, 외로움/불완전감 .79, 과민성 .86이었다. 본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Cronbach's  $\alpha$ 는 .95이었으며, 의심 .90, 거부두려움 .86, 질투심 .85, 외로움/불완전감 .80, 과민성 .83으로 나타났다.

<표 5> 집착행동 척도의 문항구성

하위요인	문항 수	문항번호	Cronbach's $\alpha$
의심	11	2, 6, 7, 8, 11, 12, 20, 23, 25, 30, 31	.90
거부 두려움	10	9, 10, 14, 19, 22, 24, 26, 27, 29, 34	.86
질투심	6	3, 4, 16, 18, 33, 35	.85
외로움 /불완전감	5	1, 15, 17, 32, 38	.80
과민성	6	5, 13, 21, 28, 36, 37	.83
전체	38	1~38	.95

#### 4) 데이트 폭력 가해 척도

본 연구에서는 데이트 폭력 가해를 측정하기 위해 Straus, Hamby, Boney-McCoy와 Sugarman(1996)이 개발한 개정판 갈등책략척도(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2: CTS-2)를 번안하여 우리나라 대학생들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한 김정란(1999)의 것을 사용하였다. 폭력 가해에 대한 측정이나 자기보고식 형태로 사회적 요망도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으나 데이트 폭력 가·피해 관련 여러 연구들에 갈등책략척도가 활용된 바 있다. 그 결과 심리적 폭력은 90% 이상의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신체적 폭력은 40~50%, 성적 폭력은 11~28%의 발생률을 보여 미국이나 캐나다의 발생률보다 높게 나타났다(이은혜, 이초롱, 현명호, 2009; 서경현, 2011). 따라서 데이

트 폭력 가해의 측정에 있어 본 척도를 활용하여 자기보고식으로 설문, 응답하여도 가해율 측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척도는 모두 2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없다’에서 ‘매우 자주 있다’의 5점 Likert 척도로 반응하도록 되어있다. 개정판 갈등척략척도는 이성관계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가해’의 입장에서 ‘심리적 폭력’,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을 포함하여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데이트 폭력 가해경험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김정란(1999)의 연구에서 가해 입장 전체 Cronbach’s  $\alpha$ 는 .89이었으며, 각 하위요인의 내적합치도는 심리적 폭력 .87, 신체적 폭력 .78, 성적폭력 .70이었다. 본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Cronbach’s  $\alpha$ 는 .86이었으며, 심리적 폭력 .81, 신체적 폭력 .75, 성적 폭력 .82로 나타났다.

<표 6> 데이트 폭력 가해 척도의 문항구성

하위요인	문항 수	문항번호	Cronbach’s $\alpha$
심리적 폭력	11	1, 2, 3, 4, 5, 6, 7, 8, 9, 10, 11	.81
신체적 폭력	7	12, 13, 14, 15, 16, 17, 18	.75
성적 폭력	4	19, 20, 21, 22	.82
전체	22	1~22	.86

###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20.0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 방법을 실시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이성교제경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주요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각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alpha$ 를 산출하였다.

둘째,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성별에 따른 데이트 폭력 가해 빈도와 비율을 비교하기 위해서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넷째,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Hayes(2012)가 제안한 순차적 중다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전반적인 분석방법에 관한 사항을 다루기 위하여 Hayes(2012)의 분석 절차를 따랐다. 순차적 매개효과 모형이란 연속적으로 매개변인이 연결된 형태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2개의 매개변인인 부정적 자동사고와 집착행동이 인과적인 연결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모형에서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는 다음과 같은 방정식을 통해서 추정된다.

$$\text{방정식 1: } M_1 = i_{M1} + a_1X + e_{M1}$$

$$\text{방정식 2: } M_2 = i_{M2} + a_2X + d_{21}M_1 + e_{M2}$$

$$\text{방정식 3: } Y = i_Y + c'X + b_1M_1 + b_2M_2 + e_Y$$

( $X$ : 독립변인,  $M_1$ : 첫 번째 매개변인,  $M_2$ : 두 번째 매개변인,  $Y$ : 종속변인,  $i$ : 상수,  $e$ : 오차)

이 모형에서 직접효과는  $c'$ 이며, 간접효과는 3가지가 있는데,  $X$ 가  $M_1$ 만을 경유하여  $Y$ 에 미치는 간접효과( $a_1b_1$ )와  $M_2$ 만을 경유한 간접효과( $a_2b_2$ ) 및  $M_1$ 과  $M_2$ 를 순차적으로 거치는 간접효과( $a_1d_{21}b_2$ )가 있다. 그리고 총간접효과는 이 세 가지 간접효과들의 합계이다. 직접효과를 추가하게 되면,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전체효과( $c$ )가 된다. 즉,  $c = c' + a_1b_1 + a_2b_2 + a_1d_{21}b_2$ 가 되게 되며, 이 식을 통해 전체 간접효과를 다시 나타내면,  $c - c' = a_1b_1 + a_2b_2 + a_1d_{21}b_2$ 로 나타낼 수 있다.

Hayes는 매개효과뿐만 아니라 조절효과, 조절된 매개효과와 같은 여러 경로모형을 SPSS Program을 이용하여 검증할 수 있도록 매크로 프로그램을 개발해 제공하고 있다. 이 매크로 프로그램은 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 회귀분석에 기반한 경로분석을 이용해서 단순매개나 중다매개 모형에서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추정하는 방법으로서,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기본적인 매개모형(독립변인, 예측변인, 종속변인 모두 1개씩인 모형)을 응용·확장하여 중다매개모형 및 중다조절모형 등을 분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순차적 이중매개 모형은 Hayes가 제안한 전체 74가지 경로모형들 중 여섯 번째 모형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Hayes(2012)가 개발한

SPSS macro 프로그램인 PROCESS에서 제시하는 부트스트랩(Bootstrap) 신뢰구간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모형에서 나타나는 모든 간접효과(내현적 자기애 → 부정적 자동사고 → 데이트 폭력 가해, 내현적 자기애 → 집착 행동 → 데이트 폭력 가해, 내현적 자기애 → 부정적 자동사고 → 집착행동 → 데이트 폭력 가해)에 대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 V. 연구결과

### 1.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제기한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전에 기초 자료로서 내현적 자기에, 부정적 자동사고, 집착행동, 데이트 폭력 가해 척도의 평균, 표준편차, 최저점수와 최고점수를 산출하였다. 주요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점수 범위로 산출된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표 7> 주요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점수 범위 (N=289)

변인	M(SD)	최소값 - 최대값
내현적 자기에 전체	120.15 (20.64)	55 - 202
인정욕구/거대자기환상	27.24 (5.30)	14 - 43
착취/자기중심성	20.30 (5.02)	9 - 40
과민/취약성	27.15 (7.10)	10 - 44
소심/자신감부족	22.82 (5.16)	9 - 38
목표불안정	22.64 (6.29)	9 - 45
부정적 자동사고 전체	56.43 (14.03)	20 - 91
타인의 부당하고 이기적인 행동에 대한 예민성	31.75 (8.25)	11 - 51
친밀한 관계에서 경험하는 무시와 실망감	24.67 (6.74)	9 - 42
집착행동 전체	91.36 (23.53)	44 - 164
의심	21.90 (7.59)	11 - 51
거부두려움	19.84 (6.87)	10 - 44
질투심	16.72 (4.78)	6 - 29

외로움/불완전감	14.89 (4.08)	5 - 25
과민성	18.01 (4.77)	6 - 30
데이트 폭력 가해 전체	31.26 (7.08)	22 - 65
심리적 폭력	19.07 (5.27)	11 - 37
신체적 폭력	7.99 (2.06)	7 - 20
성적 폭력	4.20 (.99)	4 - 13

## 2. 데이트 폭력 가해 유형에 따른 발생률과 발생빈도

데이트 폭력 유형에 따라 가해행동 빈도에 남녀 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8>에 제시하였다. 폭력 유형에 따른 가해발생률과 발생빈도를 살펴보면, 심리적 폭력,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중 어떠한 형태로든 가해 경험을 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283명(97.9%)으로 나타났다. 전체 데이트 폭력의 남녀 간의 성차는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남성에 비해 여성의 가해 비율이 높았다( $t=3.33, p<.01$ ).

심리적 폭력의 경우 어떤 형태로든 가해 경험을 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283명(97.9%)으로 나타났다. 남녀 간의 성차는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남성에 비해 여성의 가해 비율이 높았다( $t=3.28, p<.01$ ). 심리적 폭력 가해 행동 중 가장 빈번하게 경험한 폭력의 형태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은 적이 있다’ 273명(94.5%), ‘짜증난 목소리로 화를 낸 적이 있다’ 255명(88.2%), ‘침묵으로 저항한 적이 있다’ 251명(86.9%) 순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폭력 가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07명(37.0%)로 나타났다. 남녀 간의 성차는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남성에 비해 여성의 가해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t=3.57, p<.001$ ). 주로 ‘이성친구의 팔을 비틀거나 꼬집은 적

이 있다' 76명(26.3%), '이성친구를 밀친 적이 있다' 54명(18.7%), '이성친구를 발로 찬 적이 있다' 23명(8.0%)으로 경미한 폭력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에 비해 심각한 폭력에 해당하는 '이성친구를 계속해서 심하게 때린 적이 있다' 9명(3.1%), '다치게 할 수 있는 물건으로 이성친구를 때린 적이 있다' 8명(2.8%)으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더불어 여성이 남성보다 신체적 공격을 더 많이 보고하지만 강도 높은 폭력의 경우 남성이 더 많이 가해한다는 선행연구(김예정, 김득성 1999; Archer, 2000)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도 신체적 폭력 문항 별 성차를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9>에 제시하였다. 먼저, 경미한 정도의 폭력에 해당하는 물건 던지기, 팔을 비틀거나 꼬집기, 밀치기와 같은 문항 중 이성친구를 향해 물건 던지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문항에서 남녀 간의 성차는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남성에 비해 여성의 가해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각  $t=3.93$ ,  $p<.001$ ;  $t=3.44$ ,  $p<.001$ ). 심각한 신체적 폭력에 해당하는 뺨 때리기, 발차기, 물건으로 때리기, 계속해서 심하게 때리기의 문항에서 뺨 때리기와 발차기 문항만이 남녀 간의 성차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남성에 비해 여성의 가해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각  $t=2.93$ ,  $p<.01$ ;  $t=3.27$ ,  $p<.001$ ).

마지막으로 데이트 상대에게 한 번 이상 성적 폭력을 행사한 비율은 20명(6.9%)으로 나타났다. '이성친구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성행동을 조르거나 강력하게 요구한 적이 있다' 18명(6.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성행동을 하기 위해 말로 위협한 적이 있다' 8명(2.8%), '성행동을 하기 위해 잡거나 누르는 등의 완력을 사용한 적이 있다' 7명(2.4%)으로 나타났다. 성적 폭력은 다른 유형의 폭력과 다르게 남녀 간의 성차가 유의하지 않았다.

<표 8> 성별에 따른 데이트 폭력 발생 비율 차이 검증 (N=289)

변인	구분	여자 (n=171)	남자 (n=118)	t
		M(SD)	M(SD)	
	데이트 폭력 전체	1.47 (.33)	1.35 (.30)	3.33**
데이트 폭력 가해	심리적 폭력	1.81 (.49)	1.62 (.45)	3.28**
	신체적 폭력	1.19 (.32)	1.07 (.25)	3.57***
	성적 폭력	1.04 (.23)	1.06 (.27)	-.71

\*\* $p < .01$ , \*\*\* $p < .001$

<표 9> 성별에 따른 신체적 폭력 문항별 발생 비율 차이 검증

(N=289)

변인	문항	여자 (n=171)	남자 (n=118)	t
		M(SD)	M(SD)	
	12	1.04 (.19)	1.06 (.33)	-.73
	13	1.56 (.88)	1.20 (.65)	3.93***
	14	1.35 (.64)	1.12 (.51)	3.44***
신체적 폭력	15	1.14 (.48)	1.03 (.16)	2.93**
	16	1.15 (.42)	1.03 (.21)	3.27**
	17	1.05 (.35)	1.03 (.29)	.50
	18	1.05 (.29)	1.03 (.26)	.43

\*\* $p < .01$ , \*\*\* $p < .001$

### 3. 주요 변인들의 상관계수

내현적 자기애, 부정적 자동사고, 집착행동, 데이트 폭력 가해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10>에 제시하였다.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첫째, 내현적 자기애와 데이트 폭력 가해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r=.200, p<.01$ ). 소심/자신감부족을 제외한 내현적 자기애의 하위요인 모두 데이트 폭력 가해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r=.147-.213, p<.01$ ), 특히 내현적 자기애의 하위요인 중 착취/자기중심성( $r=.213, p<.01$ )은 데이트 폭력 가해와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그러나 데이트 폭력 가해의 하위요인 중 신체적 폭력과 성적 폭력은 대부분이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내현적 자기애의 하위요인 중 착취/자기중심성만이 성적 폭력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r=.151, p<.01$ ).

둘째, 내현적 자기애는 부정적 자동사고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r=.363, p<.01$ ). 또한 부정적 자동사고의 하위요인 모두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r=.271-.424, p<.01$ ).

셋째, 내현적 자기애는 집착행동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r=.492, p<.01$ ). 또한 집착행동의 하위요인 거의 모두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r=.146-.537, p<.05, p<.01$ ).

넷째, 부정적 자동사고와 집착행동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r=.363, p<.01$ ). 또한 집착행동의 하위요인 모두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특히 부정적 자동사고의 하위요인 중 타인의 부당하고 이기적인 행동에 대한 예민성( $r=.402, p<.01$ )은 집착행동과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다섯째, 부정적 자동사고와 데이트 폭력 가해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r=.169, p<.01$ ). 부정적 자동사고의 모든 하위요인은 데이트 폭력 가해의

심리적 폭력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r=.193-.213, p<.01$ ),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과는 상관이 없었다.

마지막으로 집착행동은 데이트 폭력 가해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r=.302, p<.01$ ). 집착행동의 모든 하위요인은 데이트 폭력 가해의 심리적 폭력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r=.193-.213, p<.01$ ), 외로움/불완전감, 과민성을 제외한 집착행동의 나머지 하위요인들은 신체적 폭력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반면, 집착행동은 성적 폭력과는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

<표 10> 주요 변인의 하위 요인들 간 상관관계

(N=289)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	1																		
2	.60**	1																	
3	.59**	.38**	1																
4	.89**	.48**	.42**	1															
5	.72**	.20**	.10	.68**	1														
6	.71**	.13*	.26**	.50**	.53**	1													
7	.36**	.39**	.23**	.38**	.19**	.09	1												
8	.27**	.26**	.21**	.29**	.14*	.06	.95**	1											
9	.42**	.48**	.24**	.44**	.22**	.12*	.92**	.75**	1										
10	.49**	.43**	.36**	.51**	.26**	.17**	.36**	.27**	.42**	1									
11	.37**	.35**	.36**	.36**	.16**	.10	.24**	.16**	.30**	.89**	1								
12	.51**	.34**	.37**	.54**	.30**	.23**	.26**	.19**	.32**	.83**	.69**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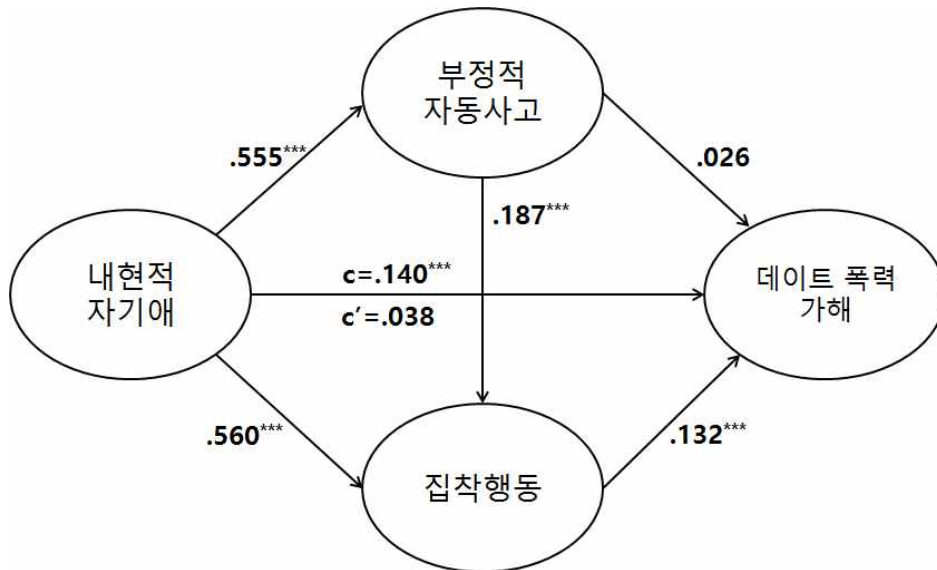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3	.42**	.39**	.27**	.44**	.25**	.15*	.34**	.26**	.39**	.81**	.67**	.54**	1						
14	.26**	.30**	.14	.29**	.11	.05	.32**	.27**	.34**	.74**	.57**	.46**	.53**	1					
15	.46**	.44**	.27**	.46**	.27**	.18**	.42**	.33**	.46**	.87**	.67**	.64**	.71**	.68**	1				
16	.20**	.17**	.21**	.18**	-.01	.15*	.17**	.15**	.17**	.30**	.31**	.30**	.26**	.13*	.19**	1			
17	.24**	.20**	.21**	.22**	.02	.17**	.21**	.19**	.21**	.34**	.33**	.34**	.29**	.17**	.25**	.94**	1		
18	.08	.05	.11	.07	-.04	.07	.05	.05	.05	.15*	.20**	.13*	.13*	.04	.06	.78**	.55**	1	
19	.02	.05	.15**	-.01	-.09	.00	-.03	-.03	-.02	.02	.05	.08	.01	-.07	-.06	.51**	.27**	.58**	1

\*  $p < .05$ , \*\*  $p < .01$

주. 1. 내현적 자기에 2. 인정욕구/거대자기환상 3. 착취/자기중심성 4. 과민/취약성 5. 소심/자신감부족 6. 목표불안정 7. 부정적 자동사고 8. 타인의 부당하고 이기적인 행동에 대한 예민성 9. 친밀한 관계에서 경험하는 무시와 실망감 10. 집착행동 11. 의심 12. 거부두려움 13. 질투심 14. 외로움/불완전감 15. 과민성 16. 데이트 폭력 가해 17. 심리적 폭력 18. 신체적 폭력 19. 성적 폭력

#### 4. 매개효과 검증

내현적 자기애와 데이트 폭력 가해 간 관계에서 부정적 자동사고와 집착행동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Hayes(2012)가 제안한 순차적 다중매개모텔 절차에 따라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내현적 자기애와 부정적 자동사고, 집착행동, 데이트 폭력 가해의 관계에 대한 이중매개모텔과 산출된 경로 계수들을 [그림 2]에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



\*\*\*  $p < .001$ ,  $c$ : 전체효과,  $c'$ : 직접효과

[그림 2] 내현적 자기애와 데이트 폭력 가해의 관계에서 부정적 자동사고와 집착행동의 매개모형

데이트 폭력 가해에 대한 내현적 자기애의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_{(1, 287)}=11.932, p<.001$ ). 자세히 살펴보면, 데이트 폭력 가해에 대한 내현적 자기애의 영향은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B=.140, t=3.454, p<.001$ ). 즉,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을수록 데이트 폭력 가해 수준이 더 높았다.

다음으로 부정적 자동차사고에 대한 내현적 자기애의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_{(1, 287)}=43.583, p<.001$ ). 자세히 살펴보면, 부정적 자동차사고에 대한 내현적 자기애 성향의 영향은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B=.555, t=6.602, p<.001$ ). 즉,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을수록 부정적 자동차사고를 더 많이 하였다.

다음으로 집착행동에 대한 내현적 자기애와 부정적 자동차사고의 회귀모형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_{(2, 286)}=55.946, p<.001$ ). 자세히 살펴보면, 집착행동에 대한 내현적 자기애( $B=.560, t=7.714, p<.001$ )와 부정적 자동차사고( $B=.187, t=3.943, p<.001$ )의 영향 모두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을수록 그리고 부정적 자동차사고 수준이 높을수록 집착행동이 더 많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데이트 폭력 가해에 대한 내현적 자기애, 부정적 자동차사고, 집착행동의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_{(3, 285)}=10.220, p<.001$ ). 자세히 살펴보면, 데이트 폭력 가해에 대한 집착행동( $B=.132, t=3.830, p<.001$ )의 영향은 정적으로 유의한 반면, 내현적 자기애( $B=.038, t=.811, p=.418$ )와 부정적 자동차사고( $B=.026, t=.923, p=.082$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집착행동을 많이 할수록 데이트 폭력 가해가 많이 나타났으나, 내현적 자기애와 부정적 자동차사고는 데이트 폭력 가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의미한다.

부정적 자동차사고와 집착행동을 투입하지 않았을 경우의 내현적 자기애가 데이트 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보다, 부정적 자동차사고와 집착행동을 투입

했을 경우의 내현적 자기애가 데이트 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이 작아진 동시에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매개 모형이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B=.140, p<.001$ ;  $B=.038, p=.418$ ). 지금까지 실시한 분석의 결과를 <표 11>에 제시하였다.

<표 11> 내현적 자기애와 데이트 폭력 가해의 관계에서 부정적 자동사고와 집착행동의 매개효과 검증

준거변인	예측변인	<i>B</i>	<i>SE</i>	<i>t</i>
데이트 폭력 가해	내현적 자기애	.140	.041	3.454***
	F(1, 287)=11.932, $p=.000$ , $R^2=.040$			
부정적 자동사고	내현적 자기애	.555	.084	6.602***
	F(1, 287)=43.582, $p=.000$ , $R^2=.132$			
집착행동	내현적 자기애	.560	.073	7.714***
	부정적 자동사고	.187	.048	3.943***
	F(2, 286)=55.946, $p=.000$ , $R^2=.281$			
데이트 폭력 가해	내현적 자기애	.038	.047	.811
	부정적 자동사고	.026	.029	.923
	집착행동	.132	.035	3.830***
	F(3, 285)=10.220, $p=.000$ , $R^2=.097$			

\*\*\*  $p<.001$

## 5. 간접효과 검증

내현적 자기애와 데이트 폭력 가해의 관계에서 부정적 자동사고와 집착행동이 이중매개하는 모형의 간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Preacher와 Hayes(2008)는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분석 방법을 정교화 하였고, 매개효과의 통계적 검증에 있어서 Sobel(1982) 검증을 사용하는 것보다 부트스트랩(Bootstrap) 절차를 따르는 것을 추천하였다(김홍석 등, 2012 재인용). 기존의 매개효과 검증이 갖는 간접효과의 표준오차를 표본수와 동일한 크기의 표본을 반복 추출하는 Bootstrap 방법을 이용해서 추정하는 방법으로 개별 매개효과의 유의도를 평가하기 위해 95%의 신뢰수준을 사용하였고, 두 회귀계수의 곱에 대한 부트스트랩 신뢰구간(CI, bias-corrected)에 0을 포함하지 않으면 개별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보았다(Shrout & Bloger, 2002). 부트스트랩은 1,000번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2>에 제시하였다.

개별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내현적 자기애가 부정적 자동사고를 거쳐 데이트 폭력 가해로 가는 경로에서 95%의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기 때문에, 부정적 자동사고를 포함하는 간접경로의 효과가 0이라는 영가설을 기각하지 못하였다( $B=.015$ , 95% Bias-corrected CI=-.013-.048).

다음으로 내현적 자기애가 집착행동을 거쳐 데이트 폭력 가해로 가는 경로에서는 95%의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간접효과가 유의적이라고 할 수 있다( $B=.074$ , 95% Bias-corrected CI=.038-.125).

마지막으로 내현적 자기애와 데이트 폭력 가해의 관계에서 부정적 자동사고를 차례로 거쳐 집착행동으로 가는 경로에서도 95%의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간접효과가 유의하였다( $B=.014$ , 95% Bias-corrected CI=.006-.029).

이를 종합하면, 내현적 자기애는 부정적 자동차 사고에 영향을 줌으로써 데이트 폭력 가해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은 지지되지 않았다. 그러나 내현적 자기애는 집착행동을 매개로 하여 데이트 폭력 가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을수록 집착행동을 많이 하고, 이성관계에서 집착행동을 많이 할수록 데이트 폭력 가해를 더 많이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을수록 부정적 자동차 사고 수준이 높아지며, 부정적 자동차 사고를 많이 경험할수록 집착행동에 영향을 미쳐 데이트 폭력 가해를 더 많이 경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2> 간접효과 Bootstrap 분석 결과

매개경로	Bootstrap estimate		95% 신뢰구간 Bootstrap with Bias-corrected	
	<i>B</i>	<i>SE</i>	하한	상한
내현적 자기애 → 부정적 자동차 사고 → 데이트 폭력 가해	.015	.015	-.013	.047
내현적 자기애 → 집착행동 → 데이트 폭력 가해	.074	.021	.038	.125
내현적 자기애 → 부정적 자동차 사고 → 집착행동 → 데이트 폭력 가해	.014	.006	.006	.029

주. Bootstrap은 1,000회 실시하였음

## V. 논 의

### 1. 결과에 대한 논의

본 연구는 만 18세에서 35세에 해당하는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내현적 자기애, 부정적 자동사고, 집착행동, 데이트 폭력 가해의 관계를 탐색하고, 데이트 폭력 가해 유형에 따라 발생률과 빈도를 살펴보고 성차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또한 내현적 자기애 성향과 데이트 폭력 가해의 관계에서 부정적 자동사고와 집착행동이 매개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내현적 자기애와 부정적 자동사고, 집착행동, 데이트 폭력 가해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내현적 자기애, 부정적 자동사고, 집착행동, 데이트 폭력 가해 사이에 각각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나타났음은 물론, 각 변인의 하위요인끼리도 대부분의 영역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현적 자기애와 데이트 폭력 가해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으며, 이는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을수록 데이트 폭력 가해가 증가한다는 김시원, 박경(2012)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내현적 자기애는 부정적 자동사고와 집착행동과도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으며, 이는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을수록 부정적 자동사고를 많이 경험한다는 주지영, 이동귀(2012)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내현적 자기애와 집착행동의 경우, 그 관계를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가 매우 제한적이나, 내현적 자기애와 집착을 특징으로 하는 소유적 사랑의 관계에 대한 설명(박지현, 2009)과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다음으로 부정적 자동사고는 집착행동과 데이트 폭력 가해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비합리적 신념 혹은 부정적 자동사고와 공격성의 관계에 대해 밝힌 선행

연구들(박정녀, 최해림, 2005; 서수균, 2011)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한일지와 이영호(2010)의 연구에서도 부정적 자동사고는 편집 성향과 정적 상관이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마지막으로 집착행동은 데이트 폭력 가해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최근 양승애와 서경현(2014), 그리고 주지현과 서경현(2015)의 연구에서 역시 집착 성향이 데이트 폭력 가해에 정적 상관을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내현적 자기애와 부정적 자동사고, 집착행동과 그에 따른 모든 하위요인들이 데이트 폭력 가해 유형 중에 성적 폭력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는데, 이는 표본 집단의 성적 폭력 가해 수준이 매우 낮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김시원과 박경(2012)의 연구에서도 내현적 자기애 성향과 역기능적 분노, 그리고 모든 하위요인이 성적 폭력과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에서 참여한 연구 대상자들이 실제 폭력 가해 수준이 낮은 집단을 대상으로 하였을 가능성도 있지만, Warshaw(1988)의 주장에 의하면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친밀도가 높을수록 사람들이 강압에 의한 성관계를 강간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성적 폭력 결과를 추가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둘째, 성별에 따른 데이트 폭력 가해의 차이 검증을 실시한 결과, 데이트 폭력 가해 전체는 남성보다 여성의 데이트 폭력 가해 비율이나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데이트 폭력 유형 중 심리적, 신체적 폭력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여성이 심리적 유형과 신체적 유형의 데이트 폭력 가해를 더 많이 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성적 폭력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데이트 폭력 가해를 남성이 더 많이 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통념과는 달리 미국에서 수행된 연구들 중에는 데이트 폭력에 성차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고(Antonio & Hokoda, 2009; O'Keefe & Treister, 1998), 여성의 데이트 폭력 가해 비율이 높았던

연구들도 있었다(Foshee, 1996; Plass & Gessner, 1983). 한국에서 수행된 연구들의 경우, 성차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보다 본 연구처럼 여성의 가해 비율이 더 높게 나온 경우가 더 많으며(서경현, 2009; 양승애, 서경현, 2014), 이는 여성의 데이트 폭력 가해 수준이 남성보다 높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인식처럼 데이트 폭력의 전형적인 피해자들은 거의 여성들이라고 알려져 있다(서경현, 2001; Levy, 1990). 이에 대해 양승애와 서경현(2014)은 데이트 폭력 가해 측정에 사용된 갈등척략척도의 문항에 상대를 밀치는 것이나 꼬집는 것, 짝 잡아 누르는 것과 같은 신체적 공격이 포함되어 있는데, 한국 문화에서 여성의 그런 행동을 폭력이라고 간주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만약 여성이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신체적 폭력 가해로 분류되고, 심각한 피해나 상처를 입히지 않더라도 맥락적인 요인이 고려되지 않은 채 빈도 측면에서 점수가 높아지게 된다.

더불어 세부적인 성차를 살펴보기 위해 신체적 폭력을 문항별로 추가 분석한 결과, 이성친구를 향해 물건 던지기 문항을 제외하고 팔을 비틀거나 꼬집기, 밀치기, 뺨 때리기, 발차기, 물건으로 때리기, 계속해서 심하게 때리기 등의 모든 신체적 문항에서 여성의 평균이 높았다. 팔을 비틀거나 꼬집기, 밀치기, 뺨 때리기, 발차기 등의 가해행동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여성의 가해 수준이 높았고, 물건으로 때리기와 계속해서 심하게 때리기와 같이 강도 높은 폭력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신체적 공격을 더 많이 보고하나, 강도 높은 폭력의 가해자는 남성이라는 Archer(2000)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다. 그러나 경미한 정도의 신체적 폭력 성차와 비교하였을 때 심각한 정도의 신체적 폭력 문항이 그 차이가 적게 나타났고, 성적 폭력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남성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여

겨진다.

선행연구와 함께 이를 종합하면,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의 설명으로 정리될 수 있다. 데이트 폭력 가해에 있어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문항에 응답하는 방식에서의 차이가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음이 시사된다. 이에 대해 서경현(2009)은 신체적 공격에 대해 묻는 문항에 응답하는 방식의 차이가 성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Shorey, Cornelius와 Bell(2008)은 사회적 바람직성이 데이트 폭력에 대한 남성들의 응답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고 주장해 이런 현상을 추가로 설명하였다. 즉, 빈도 상 여성의 가해율이 높은 이유는 척도나 반응성의 문제일 수 있고, 남성의 폭력에 대해 정직한 답을 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더불어 데이트 폭력 가해의 측정 문항들에 대한 문화적 타당화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역시,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한다고 추측된다(양난미,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 여성의 폭력 가해 경험이 더 높게 나타났으나 앞선 연구들을 통해 여성이 주로 데이트 폭력의 가해자이고 남성이 피해자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데이트 폭력의 양적인 부분보다 질적인 면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암시한다. 다만 국내의 다수의 연구들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여성의 데이트 폭력 가해 결과들을 통해 데이트 폭력의 가해자 혹은 피해자를 특정 성별의 소유자로 국한하기보다 여성과 남성 모두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일 수 있음을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미혼남녀의 내현적 자기에 성향과 데이트 폭력 가해의 관계에서 부정적 자동사고와 집착행동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Hayes(2012)의 다중매개절차에 따라 분석을 실시한 결과, 데이트 폭력 가해에 대한 내현적 자기에의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데이트 폭력 가해에 대한 내현적 자기에의 관계가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왔다. 즉,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높을수록 데이트 폭력 가해 행동이 더 많이 나타났다. 김시원과 박경(2012)의 연구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내현적 자기애가 데이트 폭력 가해의 예측 변인이 될 수 있음을 밝혔다. 이 연구들의 대상이었던 청소년이 고등학생에 해당하여 본 연구가 다른 성인초기와는 연령대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Elder(1994)의 생애발달이론에 의하면 청소년기의 생태학적 환경에서 그들이 경험했던 사건들은 성인기에 반복되거나 재생산되는 경향이 있으며, 청소년들이 대학생이나 성인 못지않은 정도의 폭력을 행사한다는 연구결과(서경현, 2002)를 고려한다면 이들의 연구결과가 본 연구 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함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국내외 다수의 연구에서 내현적 자기애가 데이트 폭력 가해를 예측할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으며(고민정, 김선정, 조서지, 조인경, 2015; Ryan et al., 2008), 기존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높은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데이트 폭력 가해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다음으로 부정적 자동차사고에 대한 내현적 자기애의 회귀모형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그 관계가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을수록 부정적 자동차사고도 많이 일어남을 시사한다.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부정적 자동차사고와 정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은 인지적 양식에서 내현적 자기애가 사건의 객관적 측면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중심으로 초점화하며 자존감이 위협될 때 현실의 의미를 바꾸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된다(Akhtar & Thompson, 1982). 실제 국내 선행연구들에서 부정적 자동차사고 혹은 비합리적 신념에 대한 내현적 자기애의 영향을 보고하였으며(김정균, 장석진, 2014; 주지영, 이동귀, 2012), 이를 통해 내현적 자기애 성향의 경우 특징으로 갖는 취약성들로 인하여 자신과 타인 그리고 세상 일련에 대해 현실적이지 않은 기대와 해석을 하는 부정적 자동차사고를 나타낼 수 있다고 예측해 볼 수 있다.

집착행동에 대한 내현적 자기애와 부정적 자동차 사고의 회귀모형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그 관계가 모두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고, 부정적 자동차 사고 수준이 높을수록 집착행동이 많이 나타남을 의미한다. 또한 이는 내현적 자기애 성향의 정도에 따라 경험되는 부정적 자동차 사고 수준이 집착행동에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애 성향과 사랑 유형의 관계를 살펴본 박지현(2009)의 연구에서 내현적 자기애는 소유적 사랑을 보인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된다. 즉,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타인과 상호작용을 하는데 있어 높은 불안과 거부두려움을 느끼며, 데이트 상대에게 끊임없이 인정받고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과도한 의존 성향을 보인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부정적 자동차 사고가 집착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들과 부합한다(원상희, 허승, 2004; 김홍석 등, 2012). 이는 관계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연애 기간이 늘어나면서 현상을 왜곡하거나 축소 혹은 확대시켜 자기중심적이고 방어적으로 해석한다는 김은희(2002)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이며, 부정적 자동차 사고와 편집증의 관계를 연구한 이훈진(1983)과 한일지와 이영호(2010)의 연구결과와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끝으로 성인초기 미혼남녀의 데이트 폭력 가해에 대한 내현적 자기애와 부정적 자동차 사고, 집착행동의 회귀모형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내현적 자기애가 데이트 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 자동차 사고와 집착행동을 투입하였을 때, 부정적 자동차 사고와 집착행동을 투입하지 않았을 때 보다 내현적 자기애가 데이트 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이 작아지는 동시에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매개 모형이 지지되었다. 이는 본 연구의 주제인 내현적 자기애와 데이트 폭력 가해의 관계가 정적으로 유의함을 보여주지만, 이러한 효과는 내현적 자기애 성향과 데이트 폭력 가해 사이에 부정적 자동차 사고와 집착행동이 투입되었을 경우에만 유의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단순히 높다고 해서 데이트 폭력 가해를 경험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데이트 폭력 가해를 직접적으로 예측하지 못한 결과를 도출하고 있는데, 이는 표본 집단의 데이트 폭력 가해 수준이 매우 낮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부정적 자동사고와 집착행동을 매개변인으로 투입하였을 경우, 데이트 폭력 가해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도 부정적 자동사고와 집착행동 경험이 데이트 폭력 가해를 예측할 수 있는 주요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성인초기 미혼 남녀의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데이트 폭력 가해를 예측하는데 있어서 부정적 자동사고와 집착행동이 순차적으로 매개하였다. 또한 내현적 자기에와 데이트 폭력 가해의 관계에서 집착행동을 통한 경로가 유의했으나, 부정적 자동사고를 통한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순차 매개효과는 성인초기 미혼남녀의 내현적 자기에 성향 수준이 부정적 자동사고를 예측하고, 이어서 집착행동을 예측할 때에 데이트 폭력 가해를 예측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데이트 폭력 가해에 대해 본 연구에서 가정했던 것처럼 성격 요인, 인지 요인, 행동 요인을 통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유의함을 시사한다. 일반적으로 어떤 스트레스 상황에서 어떤 형태의 사고가 이후 감정이나 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보는 인지치료적 관점에서 살펴보자면, 자동적 사고는 상황과 행동을 매개하는 것이다(Beck, 1967). 즉, 단순히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높다고 해서 데이트 폭력 가해를 경험하지 않는다는 점은,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가 가지는 특징적 취약성들로 인하여 이성관계에 대해 부정적으로 귀인하는 인지도식인 부정적 자동사고를 예측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이것이 집착행동과 데이트 폭력 가해를 순차적으로 예측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데이트 폭력 가해는 개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가변적이고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적 요인에 의한 복합적인 결과물로서, 성격 요인의 내현적 자기에와 인지·행동 요인의 부정적 자동사

고와 집착행동이라는 구체적인 요소를 통해 예측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회귀모형에서 데이트 폭력 가해에 대한 집착행동의 영향은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성인초기 미혼남녀의 집착행동 수준이 높을수록 대체적으로 데이트 폭력 가해 수준도 높음을 의미한다. 집착행동은 데이트 폭력 가해의 주요 예언 변인으로서 다양한 선행연구들에서 제시된 바 있으며(서경현, 2001; 양승애, 서경현, 2014; 주지현, 서경현, 2015; Levy, 1990), 본 연구의 결과도 역시 이와 부합한다. 특히 선행연구에서 집착행동의 하위요인 중 데이트 상대의 애정에 대한 '의심'이 데이트 폭력 가해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주지현, 서경현, 2015), 본 연구결과에서도 의심이 데이트 폭력 가해와 가장 높은 관련성을 보여 의처증이나 의부증에서 볼 수 있는 편집증적 기질이 가정폭력으로 이어진다는 설명(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을 지지하였다. 이 같은 결과는 결혼하기 이전에 나타난다는 차이만을 보일 뿐이다. 반면, 데이트 폭력 가해에 대한 부정적 자동사고의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는 부정적 자동사고의 수준 자체가 데이트 폭력 가해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뜻한다. 그러나 만약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부정적 자동사고를 경험한다면 이는 집착행동을 불러일으키고, 데이트 폭력 가해 경험으로 이어지게 된다. 결론적으로 부정적 자동사고는 내현적 자기에의 영향을 받아 집착행동을 통해 데이트 폭력 가해를 예측할 수 있으나, 직접적으로 데이트 폭력 가해를 예측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결과는 애착과 신념을 포함한 사회적 결속이 유지되지 않을 때 폭력적 일탈행동에 영향을 미쳐 데이트 폭력 가해를 일으킬 것이라는 제어이론(Hirschi, 1969)을 지지하였다. 유아기 시절 부모애착이 올바르게 형성되지 못할 때 자기에적 상처를 낳고, 이러한 상처는 이성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키며 그 관계에서 가장 일탈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트 폭

력 가해자로 만들 수 있음을 본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종합하면, 데이트 폭력에 대한 실제 개입에 있어 내현적 자기애는 개인의 성격 요인으로서 안정적인 개념으로 확인된다. Lasch(1979)는 오늘날 경쟁적 개인주의 문화, 개인주의 논리와 행복추구경향이 자기에 대한 자기애적 몰두라는 경쟁적 개인주의 문화를 야기 시켰는데, 여기서 독립도, 경쟁도 모두 상실되어 버리게 됨을 강조하면서, 자기애적 스타일이 현대 생활의 긴장과 불안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개인의 자기애적 성향이 개인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그것이 현상적으로 발현되는 표현 양식에 따라서 서로 다른 적응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은 경쟁주의 사회 속에서 내면에 웅대한 자기상을 형성하고 타인으로부터 자신이 대단한 사람임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를 갖고 있으나, 이러한 기대가 좌절될 때마다 내적으로 쉽게 자존감이 흔들리는 취약한 자기구조를 보인다. 따라서 이들은 타인의 평가에 늘 예민하고, 쉽게 상처받으며 오히려 친밀한 관계에서는 과시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특징을 보여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어렵다. 따라서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이 이성관계에서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지, 친밀감 형성과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데 관여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상담적 개입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들의 적응적인 이성관계를 돕는 것이 나아가 대인관계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타인과의 보다 적응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고 여겨진다. 또한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이 외현적 자기애 성향자보다 우울과 불안 등 부적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담 장면에서 충분히 공감해주고, 이들이 흔히 가질 수 있는 부적응적인 사고 혹은 인지도식에 대한 탐색 및 개입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집착행동이 특별히 데이트 폭력 가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가능성을 암시하였으므로, 집착행동이 분노 표출 및 공격성의 행동패턴으로 나

타나고 그것이 데이트 폭력일 수 있다는 Dutton(1998)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데이트 폭력의 예방이나 중재를 위해 집착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개입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즉, 데이트 폭력 예방교육이나 데이트 폭력 피해 및 가해 사례 상담에서 상대의 집착행동이 데이트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리고, 집착행동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하겠다. 특히, 본인 스스로의 행동을 이성애에 대한 집착이라고 인식하고 있지 못하며 집착을 사랑 또는 관심으로 인지왜곡을 하는 경우도 흔하게 발생한다는 점(전성규, 이영호, 2013 재인용)으로 미루어, 이성관계에서 나타나는 집착행동이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개입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이성관계 내 변화를 촉구하는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집착행동을 경감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검증된 마음챙김 명상에 기반한 스트레스 감소(MBSR) 프로그램과 같은 상담접근(김소희, 이영순, 2012)을 통해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이성관계 스트레스의 완화를 돕고 관계 만족도를 높일 뿐 아니라, 나아가 데이트 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집착 성향이 강한 연인에게 이별을 암시하거나 통보할 때에는 신중하고 적절한 방식(양승애, 서경현, 2014)을 취하도록 하는 등, 집착행동에 대한 이성관계 대처 기술을 알려주는 것도 데이트 폭력 가해 및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일 수 있다. 끝으로 집착행동을 촉발하는 관계 내 여러 불확실한 요소들을 부정적으로 지각하지 않도록 이성관계 내에 등장하는 다양한 갈등요소를 건강하게 해소하는 의사소통 및 갈등해결기술 훈련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긍정적인 관계 경험을 연습할 수 있도록 개입하는 것 또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내현적 자기애와 데이트 폭력 가해에 관한 연구들은 두 변인 간의 관련성을 밝히는데 초점을 두어 왔기 때문에, 내현적 자기애와 데이트 폭력

가해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에 대한 경험적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본 연구는 내현적 자기애와 데이트 폭력 가해의 관계에서 부정적 자동사고와 집착행동이 완전매개함을 확인함으로써, 내현적 자기애와 데이트 폭력 가해의 관련성을 이해하는데 보다 타당하고 논리적인 설명을 제공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데이트 폭력 가해를 겪는 내현적 자기애 성향의 성인초기 미혼남녀에게 개입해야 할 변인을 분명하게 밝힘으로써 데이트 폭력 내담자를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그에 따른 건강한 이성교제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시사된다.

## 2.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미혼남녀였으나, 연령을 성인초기에 해당하는 만 18세에서 35세에 한정하여 연구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결혼시기가 늦어지면서 만 36세 이후의 미혼대상도 있기 때문에 보다 폭 넓은 연령대의 미혼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모두 자기보고식으로 구성되어 연구 대상자들의 반응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경향으로 편파되었을 수 있다. Aris와 Beach(1987)의 연구에서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에 있어 여성은 비교적 정확한 피해보고를 하는데 비해 남성은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을 크게 받아 과소 보고하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도 남녀의 이러한 태도 차이가 응답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고 보인다. 특히, 본 연구가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의 데이트 폭력 가해를 측정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대상자 본인의 반응뿐만 아니라 이성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반응도 함께 측정하는 짝 자료(dyadic data)를

활용하여 비교·분석한다면,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들의 자기지각에 대한 왜곡 여부를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데이트 폭력 가해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갈등척락척도의 문항이 약 20년 전에 구성된 것으로 데이트 폭력 측정에 있어 시대흐름에 따른 환경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는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심리적 폭력이나 경미한 수준의 신체적 폭력 문항들은 폭력이 아닌 것으로 생각되는 경향이 있을 수 있고, 이는 본 연구에서도 심리적 폭력의 응답률이 97.9%로 나타나는 점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해볼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 문화적 타당성을 고려한 데이트 폭력 가해 측정 도구를 개발한다면, 보다 실증적인 연구 결과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서울, 경기권에 거주하는 일반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데이트 폭력 가해를 연구하였고, 실제로 심각한 수준의 데이트 폭력 가해자는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데이트 폭력 가해에 있어 고위험군 혹은 임상군을 대상으로 연구한 것이 아니므로, 심각한 데이트 폭력 가해에 대한 연구결과로 파악하는 데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실제 적용할 때에 이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데이트 폭력 가해에 대한 준임상군이나 임상군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한다면 데이트 폭력의 메커니즘을 보다 심도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다섯째, 본 연구는 연구방법으로 SPSS 프로그램 중 Hayes(2012)가 제안한 순차적 중다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매개변인의 검증에서 보다 선호되는 방법은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 SEM)이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한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면 측정 오차를 모델에 포함시킬 수 있고 가외변인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서영석, 2010), 본 연구의 측정 도구 중 부정적 자동사고 척도의 요인 구조의 문제가 발견

되어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지 않고 문항 전체의 합산 점수 자체를 그 값으로 사용하는 SPSS macro 프로그램 중 PROCESS에서 제공하는 다중매개모델 분석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 내현적 자기애와 테이트 폭력 가해 간의 관계에서 부정적 자동사고와 집착행동의 매개효과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한다면 보다 정교한 검증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강보영 (2015). **내현적 자기애 성향과 이성관계 만족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자기제시의 매개효과**,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강선희, 정남운 (2002). 내현적 자기애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4), 969-990.
- 강유진, 옥선화 (2005). 부부관계에 관한 비합리적 신념이 결혼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 23(6), 155-165.
- 강희순, 이은숙 (2014). 대학생의 데이트 폭력 가해 예측 요인, **한국간호과학회 정신간호학회**, 23(4), 288-298.
- 경찰청 (2015). **2015 경찰범죄통계**, 사이버경찰청.
- 고민정, 김선정, 조서지, 조인경 (2015) 내현적 자기애가 데이트폭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자료집**. 480-480
- 구지은, 송현정 (2010). 청소년의 일차적 분노사고와 이차적 분노사고의 관계에서 정서조절방략에 대한 연구 현황 및 향후 방향 제시, **심리치료: 다학제적 접근**, 10(2), 137-155.
- 권석만, 한수정 (2000). **자기애성 성격장애: 지나친 자기 사랑의 함정**, 서울: 학지사.
- 권정혜 (1993). 인지행동치료의 실제, **1993년도 한국심리학회 동계연수회 자료집**.
- 권희경, 장재홍, 권영민 (2005). 애정관계 행동 척도의 개발과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0, 497-524.
- 김성주, 이영순 (2015).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사회불안의 관계: 평가염려 완벽주의, 부정평가에 대한 두려움,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6(1), 199-216.

- 김소영 (2010). **가정폭력경험이 대학생의 데이트 폭력에 미치는 영향**, 호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소희, 이영순 (2012). 마음챙김명상에 기반한 스트레스 감소(MBSR) 프로그램이 여대생의 이성 관계 집착행동과 관계만족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3(5), 2289-2307.
- 김시원, 박경 (2012). 청소년의 내현적 자기애와 데이트폭력 가해와의 관계: 역기능적 분노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19(10), 121-141.
- 김용미 (1996). 미혼 대학생의 혼전 단계에서의 신체적 폭력의 경험에 관한 실태 조사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1), 187-197.
- 김유정, 서경현 (2009). 폭력적 데이트 관계에서의 충동성과 분노 및 분노조절,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4(2), 383-402.
- 김은희 (2002). **집착척도의 개발과 타당화**,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예정, 김득성 (1999). 대학생들의 데이트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 I ), **대한가정학회지**, 37, 187-211.
- 김정균, 장석진 (2014). 중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비합리적 신념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5(2), 791-810.
- 김정란, 김경신 (1999). 대학생의 이성교제 중 폭력과 대처행동, **대한가정학회**, 37(8), 73-90.
- 김지민, 홍혜영 (2013).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가 이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관계진술성의 매개효과,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14(3), 37-49.
- 김진희 (2011). **청소년의 자기애 성향과 분노표현의 관계에서 인지적 정서조절의 중재효과**,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홍석, 이정희, 정경연 (2012). 대학생의 열등감과 집착의 관계에서 긍·부정적 자동적 사고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3(6), 3009-3022.

- 문지혜 (2015). 대학생이 지각한 성장기 폭력 경험과 폭력허용도 및 데이트 폭력의 관계, **가족치료학회지**, 23(4), 627-653.
- 박미량 (2009). 한국대학생들의 데이트폭력 가해와 피해에 관한 연구: 성과 아동학대를 중심으로, **한국범죄학**, 3(2), 193-227.
- 박세란, 신민섭, 이훈진 (2005). 외현적·내현적 자기애의 명시적간접적 귀인 양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2), 465-474.
- 박정녀, 최해림 (2005). 청소년의 부모 애착과 자동적 사고 및 공격성,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1), 249-264.
- 박지현 (2009). 자기애의 사랑유형과 낭만적 애착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배재은 (2016). 미혼남녀의 내현적 자기애 성향과 데이트 폭력 간의 관계에서 자기위로 능력의 매개효과,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백승혜, 현명호 (2008). 내현적, 외현적 자기애 성향자의 적대감, 분노경험수준 및 분노표현양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7(4), 1001-1017.
- 서경현 (2001). 이성을 사귀면서도 폭력을 행사하는가?, **삼육대학교 학생생활연구**, 5, 91-104.
- 서경현 (2002). 청소년들의 데이트 폭력 가해 행동에 대한 사회학습적 변인들과 분노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8(2), 1-15.
- 서경현 (2009). 이성관계에서 행해지는 데이트 폭력에 관한 연구의 개관,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4(4), 699-727.
- 서경현, 김유정, 정구철, 양승애, 김보연 (2010). 데이트 폭력에 대한 가부장/비대칭 패러다임과 성-포괄적 모델의 타당성 제고,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5(4), 781-799.
- 서수균, 권석만 (2005a). 비합리적 신념, 자동적 사고 및 분노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2), 327-339.

- 서수균, 권석만 (2005b). 분노사고 척도 개발과 타당화 연구-일차적 분노사고와 이차적 분노사고, **한국심리학회지**, 24(1), 187-206.
- 서수균 (2007). 자존감과 자기에 수준에 따른 분노사고, 신념, 분노표현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3), 719-734.
- 서수균 (2011). 비합리적 신념과 공격성 사이에서 부적응적 인지전략과 대인관계양상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4), 901-919.
- 신현민 (2009).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사회불안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비합리적 신념을 매개변인으로**, 건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귀여루 (2006). 데이트폭력과 관련된 심리사회적 위험요인들에 대한 연구개관,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4), 709-726.
- 안지현, 이승연 (2013). 중학생의 내현적 자기에, 수치심, 분노, 반응적 공격성의 관계와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6(1), 61-84.
- 양난미 (2009). 대학생 문제음주와 데이트폭력의 관계에서 특성분노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0(4), 2539-2554.
- 양서연 (2011). **사랑에 대한 환상, 자존감, 자아분화 및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과 이성관계 집착행동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승애, 서경현 (2014). 집착 성향과 대학생의 데이트 폭력 간의 관계: 경계선 성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1(10), 315-336.
- 양승애, 서경현 (2015). 부모의 거부적 양육과 대학생의 데이트 폭력 간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22(8), 407-427.
- 연규진, 연문희, 양지웅 (2013). 부부관계에 대한 비합리적 신념과 결혼만족도와의 관계 : 다층모형을 이용한 자기 효과와 상대방 효과 분석, **가족치료학회지**, 21(1), 57-80.

- 오윤희 (2016). **대학생이 지각한 데이트폭력 가해동기와 데이트폭력의 관계: 남녀 차이를 중심으로**,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우아미(2008). **이성관계에서 집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과 집착 행동 척도의 개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우아미, 박준성, 정태연 (2008). 집착행동의 구성요인 및 집착행동이 이성관계에 미치는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3(4), 521-546.
- 유선영 (2000). **여대생의 가정폭력 피해와 데이트폭력 피해간의 매개 요인에 관한 연구: 데이트폭력 허용도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제민 (2002).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그 관리방안, **학생생활연구**, 9, 97-108, 강남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윤호균 (1999). **불교의 연기론과 상담**, 동양심리학, 서울: 지식산업사.
- 윤호균 (2001). 공상과 집착 그리고 상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3), 1-18.
- 원상희, 허승 (2004). 집착과 부정적 자동적 사고와 사회적 문제해결의 관계, **대학생활연구**, 22, 137-161.
- 원주식 (2006).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주관적 좌절 경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를 매개변인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복동 (2000). **성인 애착과 이성관계 만족: 거부 민감성과 귀인 양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영숙 (2005). 이성교제 중 발생한 폭력, **대한가정학회지**, 36, 49-61.
- 이영애 (2000). 청소년 공격행동과 상황조건에 따른 의도지각, 귀인 및 분노에 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1(2), 5-28.
- 이은혜, 이초롱, 현명호 (2009). 데이트폭력 관계를 유지시키는 요인으로서

- 용서 : 투자모델에 대하여, **한국심리학회지**, 28(2), 385-403.
- 이준득 (2005). **내현적, 외현적 자기에 성향자의 분노특성**,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준득, 서수균, 이훈진 (2007). 내현적·외현적 자기에 성향자의 자기개념 명료성과 부정적정서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6(2), 463-477.
- 이지현, 이정윤 (2009).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의 관계: 부모 및 또래와의 관계와 인지왜곡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0(2), 1113-1126.
- 이진숙, 현명호 (2012). 내현적 자기에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소극적 대처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9(4), 161-181.
- 이훈진 (1998). 역기능적 태도, 생활사건, 자동적 사고와 편집증 및 우울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7(1), 89-103.
- 전성규, 이영호 (2013). 대상관계수준과 파트너의 행동이 이성교제 중인 대학생의 집착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8(1), 33-53.
- 정남운 (2001). 과민성 자기에 척도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1), 193-216.
- 주지영, 이동귀 (2012). 초등학생의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열등감과 부정적 자동사고의 순차적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3(6), 2657-2679.
- 주지현, 서경현 (2015). 부모와의 애착 및 이성과의 관계에서 집착과 데이트 폭력 간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22(5), 209-229.
- 조은희, 곽은영 (2012). 실패 피드백 이후 내현적·외현적 자기에 성향자의 분노와 분노표현 양식, **재활심리연구**, 19(3), 583-599.

- 최선우, 이영호 (2015). 이성관계에서 자기애 성향에 따른 갈등대처방식, 정서 및 관계 만족도의 차이: 대학생을 중심으로, **인간이해**, 36(1), 21-40.
- 최순남 (1989). 대학생의 이성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 한신대학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신대학교 학생생활연구**, 2, 31-67.
- 최정인 (2009). **평가적 피드백에 따른 자기애 성향자의 자존감 변화 및 정서조절방략**,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혜정, 장문선 (2010). 외현적, 내현적 자기애 성향집단의 MMPI-2 프로파일 유형과 자아방어기제 특징, **상담학연구**, 11(2), 539-554.
- 한수정 (1999). **자기애적 성격성향자의 외현적·내현적 자기관련 인지특성**,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일지, 이영호 (2010). 부적응 도식, 스트레스, 자동적 사고와 편집성향 및 우울증상의 관계, **인지행동치료**, 10(1), 57-74.
- 홍서윤 (2014).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1(12), 73-95.
- 홍성례 (2007). 낭만적 애착과 자아존중감 및 사랑유형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 한국가정관리협회지**, 25(1), 169-182.
- 황성훈 (2010). 자기애성 성격 성향자들의 자기구조 특성: 외현형 및 내현형 자기애의 하위분류에 따른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9(3), 507-531
- 황영주 (2013). **자기애 성향자의 연애태도가 이성관계 만족에 미치는 영향**, 덕성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guilar, R., & Nightingale, N. (1994). The impact of specific battering experiences on self-esteem of abused women. *Journal of Family Violence*, 9, 35-45.

- Akhtar, S., & Tompson, A. (1982). Overview: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9*(1), 12-20.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80).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3rd ed).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4th ed).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5th ed).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Antonio, T., & Hokoda, A. (2009). Gender Variations in dating violence and positive conflict resolution among Mexican adolescents. *Violence and Victims*, *24*, 533-545.
- Aris, I., & Beach, S. R. H. (1987). Validity of self-reports of marital violence. *J. of Family Violence*, *2*(2), 139-149.
- Ayduk, O., Gyurak, A., & Lauerksen, A. (2008).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rejection-aggression link in the hot sauce paradigm: The case of rejection sensitivity.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4*(3), 775-782.
- Archer, J. (2000). Sex differences in aggression between heterosexual partner: a meta-analytic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26*(5), 651-680.
- Bandura, A. (1977). *Social Learning Theory*. New York: General Learning Press.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di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axter, L. A. (1990). Dialectical contradictions in relationship development.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7*, 69–88.
- Beck, A. T. (1967). *Depression: Clinical, experimental, and theoretical aspects*. New York: Harper & Row.
- Beck, A. T. (1976). *Cognitive therapy and the emotional disorders*.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 Beck, A. T., Rush, A. J., Shaw, B. F., Emery, G. (1979). *Cognitive therapy of depression*. New York: Guilford Press.
- Bowles, D. P., & Meyer, B. (2008). Attachment priming and avoidant personality features as predictors of social–evaluation biases.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22*(1), 72–88.
- Brown, T. M. & Miller, C. E. (2000). Communication networks in task–performing groups: Effects of task complexity, time pressure, and interpersonal dominance. *Small Group Research, 31*(2), 131–156.
- Carroll, L., Hoenigmann–Stovall, N., & Whitehead III., G. I. (1996). Interpersonal consequences of narcissism. *Psychological Reports, 79*, 1267–1272.
- Dardis, C. M., Dixon, K. J., Edwards, K. M., & Turchik, J. A. (2014). An examination of factors related to dating violence perpetration

- among young men & women & associated theoretical explanations: A review of the literature. *Trauma Violence Abuse*, *16*(2), 136-152.
- Davis, C., Claridge, G., & Brewer, H. (1996). The two faces of narcissism: Personality dynamics of body esteem. *Journal of Psychology*, *15*(2), 153-166.
- Davis, K. E., Ace, A., & Andra, M. (2000). Stalking perpetrators and psychological maltreatment of partners: Anger-jealousy, attachment insecurity, need for control, and break-up context. *Violence and Victims*, *15*(4), 407 - 425.
- Deffenbacher, J. L., & McKay, M. (2000). *Overcoming situational and general anger*. Oakland: New York: Harbinger.
- Deffenbacher, J. L. (2011). Cognitive-behavioral conceptualization and treatment of anger. *Cognitive and Behavioral Practice*, *18*(2), 212-221.
- Dutton, D. G.(1998). *The abusive personality: Violence and control in intimate relationships*.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Eckhardt, C., & Dye. M. L. (2000). The cognitive characteristics of maritally violent dating relationships. *Violence Victims*, *15*, 337-350.
- Eckhardt, C., & Jamison, T. R. (2002). Articulated Thoughts of Male Dating Violence Perpetrators During Anger Arousal.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6*(3), 289-308.
- Eidelson, R. J., & Epstein, N. (1982). Cognition and relationship maladjustment : Development of a measure of dysfunctional

- relationship belief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0*, 715-720.
- Elder, G. H. (1994). Time, human agency, and social change: perspectives in the life course. *Social Psychological Quarterly, 57*, 4-15.
- Ellis, A. E. (1962). *Reason and emotion in psycho therapy*. New York: Lyle Stuart.
- Ellis, A. E. (1973). *Humanistic psychotherapy*. New York: McGraw-Hill.
- Ellis, A. E. (1986). Rational emotive therapy applied to relationships therapy. *Journal of Rational Emotive Behavior Therapy, 4*, 14-21.
- Emmons, R. A. (1987). Narcissism: Theory and measur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1), 11-17.
- Epstein, N., Finnegan, D., & Bythell, D. (1979). Irrational beliefs and Perceptions of Marital Conflic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7*(3), 608-610.
- Feeney, J. A., & Noller, P. (1990). Attachment style as a predictor of adult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2), 281-291.
- Fennell, M. (1989). *Cognitive behavior therapy for psychiatric problems: A practical guide*. Oxford University. 169-234.
- Follingstad, D. R., Bradley, R. G., Helff, C. M., & Laughlin, J. E. (2002). Model for predicting dating violence anxious attachment, angry temperament, and need for relationship control. *Violence and Victims, 17*(1), 35-47.
- Foshee, V. (1996). Gender differences in adolescent dating abuse prevalence, types, and injuries. *Health Education Research, 11*,

275-286.

- Friedman, J. & Rosenbaum, D. P. (1988). Social control theory: The salience of components by age, gender, and type of crime.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4*(4), 363-381.
- Garnefski, N., Kraaij, V., & Spinhoven, P. (2001). Negative life events,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and emotional problem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0*(8), 1311-1327.
- Gottman, J. M., & Levenson, R. W. (2000). The timing of divorce over a 14-year peri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3), 737-745.
- Gray, H. M., & Foshee, V. (1997). Adolescent dating violence: Differences between one-sided and mutually violent profile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2*(1), 126-141.
- Hatfield, E., & Sprecher, S. (1986). Measuring passionate love in intimate relations. *Journal of Adolescence*, *9*(4), 383-410.
- Hayes, A. F. (2012). *PROCESS: A versatile computational tool for observed variable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modeling*. [Manuscript submitted for publication]
- Hirschi, T. (1969). *Causes of Delinquenc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Holtzworth-Munroe, A., & Hutchinson, G. (1993). Attributing negative intent to wife behavior: The attributions of maritally violent versus nonviolent me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2*, 206-211.
- Jackson, L. A., Ervin, K. S., & Hodge, C. N. (1992). Narcissism and

- body imag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6(4), 357-370.
- Joyner, K., & Udry, J. R. (2000). You don't bring me anything but down: Adolescent romance and depression.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1, 369-391.
- Kernberg, O. F. (1975). A Systems Approach to Priority Setting of Interventions in Groups. *International Journal of Group Psychotherapy*, 25(3), 251-275.
- Kohut, H. (1971). *The analysis of the self*, New York, NY: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Kohut, H. (1977). *The restoration of the self*. New York, NY: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Lasch, C. L. (1979). The culture of narcissism. 최경도 역(1989). **나르시시즘의 문화**. 서울:문학과 지성사.
- Lanhinrichsen-Rohling, J., Misra, T. A., Selwyn, C., & Rohling, M. L. (2012). Rates of bidirectional versus unidirectional intimate partner violence across samples, sexual orientations, and race/ethnicities: A comprehensive review. *Partner Abuse*, 3(2), 199-230.
- Lazarus, R. S. (1991). *Emotion and adapt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 Lee, J. A. (1988). Love-styles. In R. J. Sternberg & M. Barnes (Eds.), *The psychology of love*(pp. 38-67).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Levy, B. (1990). Abusive teen dating relationships: An emerging issue for the'90s. *Response to the Victimization of Women and Children*, 13(1): 5.
- Lloyd, S., Koval, J., & Cate, R. (1989). Conflict and violence in dating

- relationships, In M. A. Pirog-Good & J. E. Stets (eds), *Violence in Dating Relationships: Emerging Social Issues*. New York: Praeger, 127-142.
- Makin-Byrd, K., & Azar, S. T. (2011). Beliefs and attributions of partner violence of adolescent males. *Violence and Victims, 26*, 177-190.
- Makepeace, J. M. (1981). Courtship violence among college students. *Family Relations, 30*, 97-102.
- Makepeace, J. M. (1986). Gender differences in courtship violence victimization. *Family Relations, 35*, 383-388.
- Molidor, C., & Tolman R. M. (1998). Gender and contextual factors in adolescent dating violence. *Violence Against Women, 4*(2), 180-194.
- O'Keefe, N. K., & Treister, L. (1998). Victims of dating violence among high school students: Are the predictors different for males and females?. *Violence Against Women, 4*, 195-223.
- O'Leary, K. D., Malone, J. & Tyree, A. (1994). Physical aggression in early marriage: prerelationship and relationship effec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2*(3), 594-602.
- Plass, M. S., & Gessner, J. C. (1983). Violence in courtship relations: A southern sample. *Free Inquiry in Creative Sociology, 11*, 198-202.
- Preacher, K. J., & Hayes, A. F. (2008). Asymptotic and resampling strategies for assessing and comparing indirect in multiple mediator models. *Behavior Research Methods, 40*(3), 879-891.
- Raskin, R., & Hall, C. S. (1981). A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 Alternative form reliability and further evidence of construct validit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5*, 159–162.
- Riggs, D. S., & O’Leary, K. D.(1989). Intentional falsification in reports of interpartner aggressio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4*, 220–232.
- Riggs, D. S., O’Leary, K. D., & Breslin, F. C. (1990). Multiple correlates of physical aggression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5*(1), 61–73.
- Rose, P. (2002). The happy and unhappy faces of narciss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3*(3), 379–391.
- Ryan, K. M., Weikel, K., & Sprechini, G., (2008). Gender Differences in Narcissism and Courtship Violence in Dating Couples. *Sex Roles*, *58*, 802–813.
- Sabina, C., & Straus, M. A. (2008). Polyvictimization by dating partners and mental health among U.S. College Students. *Violence and Victims*, *23*, 667–682.
- Sedikides, C., Rudich, E., Gregg, A., Kumashiro, M., & Rusbult, C. (2004). Are Normal Narcissists Psychologically Healthy?: Self-Esteem Matt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7*, 400–416.
- Shorey, R. C., Cornelius, T. L., & Bell, K. M. (2008). Critical review of theoretical frameworks for dating violence: Comparing the dating and marital fields.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3*(3), 185–194.
- Sobel. M. E. (1982).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 in structural equations models. *Sociological methodology*, 13, 290-312.
- Stackert, R. A., & Bursik, K. (2003). Why am I unsatisfied? Adult attachment style, gendered irrational relationship beliefs, and young adult romantic relationship satisfact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4, 1419-1429.
- Stark, E. (2010). Do violent acts equal abuse? Resolving the gender parity/asymmetry dilemma. *Sex Roles*, 62, 201-211.
- Stets, J. E., (1990). Verbal and physical aggression in marriag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501-514.
- Stets, J. E., & Henderson, D. A. (1991). Contextual factors surrounding conflict resolution while dating: Results from a national study. *Family relations*, 40, 29-36.
- Straus, M. A. (1991). Discipline and deviance: Physical punishment of children and violence and other crime in adulthood. *Social Problems*, 38(2), 133-154.
- Straus, M. A. (2008). Dominance & symmetry in partner violence by male & female university students in 32 nations. *Children & Youth Services Review*, 30(3), 252-275.
- Straus, M. A., Hamby, S. L., Boney-McCoy, S., & Sugarman, D. B. (1996). 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 (CTS-2): Development and preliminary psychometric data. *Journal of Family Issues*, 17(3), 283-316.
- Tennove, L., (1979). *Love and limerence*. Chelsea: Scarborough House Publishers.

- Warkentin, J. B. (2008). *Dating Violence and Sexual Assault Among College Men: Co-Occurrence, Predictors, and Differentiating Factors*. College of Arts and Sciences.
- Warshaw, R. (1988). *I never called it rape*. New York: Harper & Row.
- Wheeler, M. L. (2002). *Effect of attachment and threat of abandonment on intimacy anger, aggressive behavior, and attributional styl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yracuse University, New York.
- White, J. W., & Koss, M. P. (1991). Courtship violence: Incidence in a national sample of higher education students. *Violence and Victims, 6*(4), 247-256.
- Wink, P. (1991). Two faces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4), 590-597.
- Wink, P., & Gough, H. G. (1990). New narcissism scales for the California Psychological Inventory and MMPI.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4*, 446-462.

## 부 록

부록 1. 내현적 자기애 척도(Covert Narcissism Scale: CNS)

부록 2. 일차적 분노사고 척도(Anger-Thought Scale)

부록 3. 집착행동 척도

부록 4. 개정판 갈등책략척도(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  
CTS-2)

## 부록 1. 내현적 자기에 척도

I. 다음은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일반적 태도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입니다. 아래의 문항을 읽고 평소 자신과 가장 가까운 곳에 ○ 표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NO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살피는 편이다.	1	2	3	4	5
2	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나에게 잘 대해 주기를 바란다.	1	2	3	4	5
3	비판 받았을 때, 나는 쉽게 굴욕감을 느낀다.	1	2	3	4	5
4	나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마음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나를 위해 많은 돈을 쓰기를 바란다.	1	2	3	4	5
5	많은 고민을 했지만, 아직도 인생의 목표에 대해서 갈피를 못 잡고 있다.	1	2	3	4	5
6	나를 내가 아닌 다른 어떤 유명한 사람처럼 그려보고 싶다.	1	2	3	4	5
7	나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려고 너무 애쓰는 것 같다.	1	2	3	4	5
8	나는 가끔 남의 비평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1	2	3	4	5
9	나는 다른 사람들이 부탁을 해올 때에 때때로 짜증이 난다.	1	2	3	4	5
10	가족들 중에는 내가 이기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1	2	3	4	5
11	나에게 즐거운 일이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는다.	1	2	3	4	5
12	나는 다른 사람이 자기 문제로 와서 내 시간을 요구하거나 공감해주시기를 요구할 때, 말은 못해도 괴롭고 귀찮다.	1	2	3	4	5

13	나는 내가 잘 한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란다.	1	2	3	4	5
14	나는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열등감을 느낀다.	1	2	3	4	5
15	나에게 미래는 막연하고 불확실하게 보인다.	1	2	3	4	5
16	속기보다 차라리 남을 속이는 것이 좋다.	1	2	3	4	5
17	나는 내게 부족한 것(예: 외모, 돈, 능력 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질투가 난다.	1	2	3	4	5
18	때때로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도 내 자신을 주장하지 못할 때가 있다.	1	2	3	4	5
19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내 인생은 남들보다 불행한 일이 더 많은 것 같다.	1	2	3	4	5
20	내 삶의 목표는 비교적 명확하다.	1	2	3	4	5
21	나는 겁이 많고 소심한 사람이다.	1	2	3	4	5
22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대접을 받아 자존심이 상했던 경우가 있다.	1	2	3	4	5
23	나는 내가 하는 일에서 진정한 즐거움을 찾지 못하고 있다.	1	2	3	4	5
24	나는 여러 가지 일에 모두 뛰어나기를 바란다.	1	2	3	4	5
25	사람들이 나의 결점을 알아차릴까봐 자주 두렵다.	1	2	3	4	5
26	내가 보잘 것 없는 존재로 느껴질 때가 있다.	1	2	3	4	5
27	필요하다면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사람들을 교묘하게 이용할 것이다.	1	2	3	4	5
28	나는 어떤 모임에 참석하든 항상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구석진 자리에 앉는 편이다.	1	2	3	4	5
29	나는 내가 다음에 무엇을 하게 될지 전혀 모르겠다.	1	2	3	4	5

30	직업을 통해 내가 무엇을 추구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1	2	3	4	5
31	나는 창피스러운 일을 당하면, 두고 두고 생각하며 괴로워하는 편이다.	1	2	3	4	5
32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 비해 활기가 적은 편이다.	1	2	3	4	5
33	나는 사람들이 왜 나의 장점을 좀 더 알아주지 않는지 의아하게 생각한다.	1	2	3	4	5
34	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나 친하지 않은 사람 앞에서도 별로 긴장하지 않는다.	1	2	3	4	5
35	나는 나에게 득이 될 때만 '공평한 원칙'을 지킨다.	1	2	3	4	5
36	나는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조차도 종종 매우 외롭고 불편하다.	1	2	3	4	5
37	나는 지금 내가 하는 일에 만족을 느낀다.	1	2	3	4	5
38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주목하고 높이 평가해주었으면 좋겠다.	1	2	3	4	5
39	나는 혼자서는 결정을 잘 내리지 못하는 것 같다.	1	2	3	4	5
40	요 며칠 동안 나는 계속 슬프고 우울했는데, 쉽게 이런 기분이 나아질 것 같지 않다.	1	2	3	4	5
41	누군가가 보고 있는 자리에서 일하는 것은 아주 힘이 든다.	1	2	3	4	5
42	나는 일의 의미를 찾기가 어렵다.	1	2	3	4	5
43	항상 다른 사람들로 부터 인정받고 지지받고 싶다.	1	2	3	4	5
44	나의 문제는 내가 무엇이 되고 싶은지를 정말 모른다는 것이다.	1	2	3	4	5
45	기회가 된다면, 나는 죄책감 없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할 것이다.	1	2	3	4	5

## 부록 2. 일차적 분노사고 척도

II. 다음은 화가 나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열거한 것입니다. 아래의 문항을 읽고 그 상황에 처했을 때 당신이 경험하는 느낌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정도에 따라 적당한 숫자에 ○표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NO	문 항	전혀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한다	종종 이런 생각을 한다	자주 이런 생각을 한다	항상 이런 생각을 한다
1	믿었던 친구가 날 비난하고 내게 공격적인 행동을 하면, 나는 배신감을 느낀다.	1	2	3	4	5
2	누가 나를 무시하는 듯한 말투로 얘기하면, 그 사람이 나를 우습게 본다고 여겨진다.	1	2	3	4	5
3	믿었던 친구의 태도가 뼈뺌하면, 그가 자기감정대로 행동하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	1	2	3	4	5
4	다른 사람을 심하게 비난하는 사람을 보면,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감정 밖에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1	2	3	4	5
5	중요하다고 여겼던 사람이 내게 중요한 어떤 사실을 얘기해주지 않으면, 나는 배신감을 느낀다.	1	2	3	4	5
6	아끼던 사람이 나에게 대해 험담을 뒤에서 하고 다니면, 내가 바보같이 여겨지고 그 사람에 대한 나의 믿음이 헛되다는 생각이 든다.	1	2	3	4	5
7	친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내 말이 나 행동을 받아주지 않으면,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든다.	1	2	3	4	5

8	바빠서 정신이 없는데 나를 굳이 만나고 싶어 하고 자기한테로 오라고 고집하면, 나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상황을 전혀 고려해주지 않는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1	2	3	4	5
9	자기도 어려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시키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1	2	3	4	5
10	누가 연락도 없이 나를 기다리게 하면, 내 시간을 빼앗았다는 생각과 함께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1	2	3	4	5
11	누가 내 말을 무시하면, 내 자신이 그 사람에게 보잘 것 없는 존재라는 생각이 든다.	1	2	3	4	5
12	잘못을 하고도 내게 사과하지 않으니, 이는 나를 무시하는 것이다.	1	2	3	4	5
13	발표 준비 기간 동안 한 번도 관심을 보이지 않던 동료가 발표를 앞두고 내게 어떻게 되어가냐고 물어왔다. 이 동료가 너무 염치도 없고 이기적이다.	1	2	3	4	5
14	내가 미리 전화 걸어서 얘기를 했는데도 상대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는 나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15	친한 사이인 줄 알았던 사람이 갑자기 냉랭한 태도를 보이며 오히려 날 비판하면, 내가 이해받지 못하고 수용 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든다.	1	2	3	4	5
16	누가 자기 기분대로 나를 대하면, 이 사람이 나를 만만히 보고 이렇다는 생각이 든다.	1	2	3	4	5

17	나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들통이 났는데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 다는 게 정말 참을 수가 없다. 그 럴 때는 그 사람이 날 대수롭지 않 게 생각한다고 느껴진다.	1	2	3	4	5
18	내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화부터 내는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날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 다.	1	2	3	4	5
19	누가 자기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내 성격과 태도가 잘못되었다고 고치 라고 하면, 이는 날 너무 만만하게 보는 것이다.	1	2	3	4	5
20	부모님이 내 얘기는 들어 보시지도 않고 무조건 화만 내시면, 내 생각 은 전혀 해주질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	1	2	3	4	5

귀하는 지금까지 이성을 사귄 경험(이성교제 경험)이 있습니까?

1) 없다

☞ 귀하는 이성교제 경험이 전혀 없다고 답하셨습니다. 귀하에 대한 질문은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있다

☞ 귀하는 이성교제를 한 적이 있다고 답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에 계속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록 3. 집착행동 척도

Ⅲ. 다음은 이성친구를 만날 때 당신의 태도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입니다.  
아래 문항을 읽고 현재 혹은 과거의 이성교제 대상을 떠올려 평소 자신과 가장 가까운 곳에 ○표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NO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상대방에게 전화와 문자를 수시로 한다.	1	2	3	4	5
2	상대방의 홈페이지, e-메일 등의 비밀번호를 알아내려고 한다.	1	2	3	4	5
3	상대방이 다른 이성과 친하게 지내면 질투한다.	1	2	3	4	5
4	상대방이 나에게 집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 화가 난다.	1	2	3	4	5
5	상대방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확인받고자 한다.	1	2	3	4	5
6	상대방과 매 시간 문자를 주고받아야 한다.	1	2	3	4	5
7	상대방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 모르면 초조하다.	1	2	3	4	5
8	상대방의 과거에 대해 알기 위해 노력한다.	1	2	3	4	5
9	상대방과 안 좋았던 일들을 자꾸 상상하게 된다.	1	2	3	4	5
10	상대방을 생각하면 우울한 기분이 든다.	1	2	3	4	5
11	상대방이 어디 있는지 문자와 전화로 수시로 확인한다.	1	2	3	4	5
12	상대방이 다른 이성과 만나는지 감시한다.	1	2	3	4	5
13	상대방이 나만 생각해 주기를 바란다.	1	2	3	4	5
14	상대방이 나 이외에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초라하다.	1	2	3	4	5

15	모든 것을 상대방과 관련지어 생각한다.	1	2	3	4	5
16	상대방이 다른 이성과 연락하거나 말하는 것만 봐도 질투난다.	1	2	3	4	5
17	상대방이 계속 보고 싶다.	1	2	3	4	5
18	상대방이 다른 이성을 만나면 질투한다.	1	2	3	4	5
19	상대방의 사소한 행동에 큰 의미를 부여하여 불안을 느낀다.	1	2	3	4	5
20	상대방의 다른 이성친구에 대해 집요하게 물어본다.	1	2	3	4	5
21	내가 상대방을 생각하는 만큼 상대방도 나를 생각해주기를 바란다.	1	2	3	4	5
22	상대방의 연락을 기다리며 초조해한다.	1	2	3	4	5
23	상대방의 하루 일과를 세세히 알아야 한다.	1	2	3	4	5
24	일을 소홀히 하고 상대방을 따라 다닌다.	1	2	3	4	5
25	상대방의 행동을 간섭하고 통제한다.	1	2	3	4	5
26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는 만큼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27	상대방 생각 때문에 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1	2	3	4	5
28	상대방이 나를 더 사랑해주길 바란다.	1	2	3	4	5
29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이 자주 생긴다.	1	2	3	4	5
30	상대방의 휴대폰 통화내역과 문자내역을 수시로 확인한다.	1	2	3	4	5
31	상대방이 만나기 어렵다고 해도 만나기를 요구한다.	1	2	3	4	5
32	상대방과 매일 만나려고 한다.	1	2	3	4	5
33	나와 있을 때 상대방에게 문자나 전화가 오는 것을 보면 불쾌하다.	1	2	3	4	5

34	상대방이 나를 떠날까봐 불안해한다.	1	2	3	4	5
35	상대방이 다른 이성을 친절하게 대하면 불쾌하다.	1	2	3	4	5
36	상대방이 애정표현을 해주지 않으면 왠지 불안하다.	1	2	3	4	5
37	상대방으로부터 연락이 오지는 않았는지 내 핸드폰을 수시로 확인한다.	1	2	3	4	5
38	상대방과 항상 같이 있고 싶다.	1	2	3	4	5

#### 부록 4. 개정판 갈등척량척도

IV. 다음은 이성교제 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상황에 관한 문항입니다. 아래의 문항을 읽고 현재 혹은 과거의 이성교제 대상에게 다음과 같이 행동을 했다면 얼마나 자주 그러한 행동을 하였는지 ○표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NO	문항	전혀 없음	가끔	보통	자주	매우 자주
1	못마땅한 표정을 지은 적이 있다.	1	2	3	4	5
2	짜증난 목소리로 화를 낸 적이 있다.	1	2	3	4	5
3	욕을 한 적이 있다.	1	2	3	4	5
4	고함을 지르거나 큰소리를 낸 적이 있다.	1	2	3	4	5
5	침묵으로 저항한 적이 있다.	1	2	3	4	5
6	화가 나서 발을 세게 구르거나 문을 세게 닫은 적이 있다.	1	2	3	4	5
7	일부러 술을 먹고 와서 주정을 부린 적이 있다.	1	2	3	4	5
8	이성친구를 괴롭히기 위해 악의에 찬 말을 한 적이 있다.	1	2	3	4	5
9	이성친구의 약점을 잡아 모욕을 한 적이 있다.	1	2	3	4	5
10	이성친구의 물건을 던지거나 부순 적이 있다.	1	2	3	4	5
11	때리거나 물건을 던지겠다고 위협한 적이 있다.	1	2	3	4	5
12	다치게 할 수 있는 물건을 이성친구에게 던진 적이 있다.	1	2	3	4	5
13	이성친구의 팔을 비틀거나 꼬집은 적이 있다.	1	2	3	4	5
14	이성친구를 밀친 적이 있다.	1	2	3	4	5
15	이성친구의 뺨을 때린 적이 있다.	1	2	3	4	5
16	이성친구를 발로 찬 적이 있다.	1	2	3	4	5

17	다치게 할 수 있는 물건으로 이성친구를 때린 적이 있다.	1	2	3	4	5
18	이성친구를 계속해서 심하게 때린 적이 있다.	1	2	3	4	5
19	이성친구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성행동을 조르거나 강력하게 요구한 적이 있다.	1	2	3	4	5
20	성행동을 하기 위해 말로 위협한 적이 있다.	1	2	3	4	5
21	성행동을 하기 위해 잡거나 누르는 등의 완력을 사용한 적이 있다.	1	2	3	4	5
22	성행동을 하기 위해 이성친구를 때리거나 다치게 할 수 있는 물건으로 위협한 적이 있다.	1	2	3	4	5

# ABSTRACT

The Relations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Dating Violence  
among unmarried men and women  
: The Mediating Effects of Negative Automatic Thoughts and  
Obsessive behavior

Lee, Ahram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negative automatic thoughts and obsessive behavior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dating violence. For this purpose, Covert Narcissism Scale, Anger Thought Scale, Obsessive Behavior Scale, and The Revised Conflict Scale<sup>2</sup> Questionnaire were administered to 289 unmarried men and women have been in romantic relationship were participat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gender differences in dating violence, women showed significantly higher levels of psychological and physical violences.

Second, as a result of correlation analysis with major factors, such as covert narcissism, dating violence, negative automatic thoughts, and obsessive behavior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Third, the mediating effect of negative automatic thoughts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dating violence, while the mediating effect of obsessiv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Also, covert narcissism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on dating violence through negative automatic thoughts and obsessive behavior.

Lastly, negative automatic thoughts and obsessive behavior fu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dating violence.

As this study investigated that covert narcissism influenced dating violence by sequentially mediating negative automatic thoughts and obsessive behavior, it helps theoretical approach on the mechanism and route of dating violence to provide.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directions for future study are discussed.

*Key words: Dating violence, Covert narcissism, Negative automatic thoughts, Obsessive behavior*